Entertainment p/20
박유천 중국 대륙을 흔들다

metro®
메트로 2014년 7월 16일 수요일 제3015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유럽파 태극전사 둥지 이동

한국 증시에 중국발 '희망의 빛'

대륙 경제지표 청신호 시진핑 방한 후속조치

2분기 성장률 7%↑땐 코스피 2000안착 기대

올 하반기 한국 증시에 희망의 빛이 비칠 듯하다.

중국 경제지표 회복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으로 국내 증시에 '중국발 훈풍'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민병규 동양증권 연구원은 "최근 유동성 지표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지표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중국에서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6월 산업생산·고정자산 투자, 6월 소매판매지표 등이 대거 발표된다.

국내 주식시장에 중국의 입김이 해마다 세지면서 시장에서도 이들 지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은 16일 발표되는 중국 2분기 GDP 성장률에 쏠려 있다. 중국의 경기 동향은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상수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증권가는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와 동일한 7.4% 안팎이 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2분기 성장률이 예측치에 부합한다면 무난한 성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연간 목표치 7.5%에 근접한다는 것이다. 민 연구원은 "16일 발표되는 중국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여 경기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2분기에 시장 전망치인 7.4%의 경제성장률을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6월 소매판매도 5월과 같은 12.5% 수준이 예상되고, 광공업생산은 9.0%로 5월(8.8%)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문정희 KB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전 분기 대비 성장률(1.8% 예상)은 오히려 1분기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 하반기에도 대외무역 개선과 통화량 증가, 정부의 미세 조정 등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전망된다"고 판단했다. 박옥희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중국은 하반기에도 강력한 부양책은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中 지표, 2000선 안착에 변수

증권가에서도 중국 경제지표 훈풍에 기대를 걸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회복세에 따라 국내 증시도 혜택을 볼 것"이라며 "중국 모멘텀이 코스피 2000선에 안착하는데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이현주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지난해 7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악재에 급락했지만,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9월에는 2000선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조선, 운송, 건설 등 대표적인 경기민감주들이 반등을 주도했다"면서 "이들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석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제 모멘텀이 취약성을 지속하기보다는 완만한 개선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일부에선 하반기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경우 국내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심리는 더욱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국내 증시에는 중저가 캐주얼 의류·신발 제조업체인 '차이나그레이트'를 포함해 '완리' '에스앤씨엔진그룹' '이스트아시아홀딩스' 등 총 10개 기업이 상장돼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국 경기의 회복세와 함께 국내 상장 중국기업들의 옥석 가리기 과정이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실적 모멘텀을 확보한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오늘부터 직행 좌석버스 '입석 금지' 수도권 직행 좌석버스 입석운행 제한조치 시행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서울 강남역 부근 강남대로를 통행하는 직행 좌석버스 전면에 '입석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국 최다승객 버스는 부천 88번

전국에서 승객이 가장 많은 시내버스는 경기 부천 88번 버스(부천 오장동~여의도 환승센터)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3만1040명이다.

서울 143번 버스(성북구 정릉~강남구 개포동)가 하루 평균 승객 2만9981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과 인천 경인교대를 오가는 152번과 서울 중랑구 면목동~서대문구 남가좌동 구간의 272번은 각각 2만7865명과 2만7517명으로 3, 4위에 올랐다.

부산 68번 버스(용담동~하단)는 2만6418명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 버스로는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버스 정류장 가운데 승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사당역 정류장으로 하루 평균 15만7330명이 탑승했다.

2위는 경기 수원역·AK백화점 정류장으로 하루 이용객은 15만1234명.

교통카드시스템이 구축된 137개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이용실태와 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일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자는 1331만명이며 이용횟수는 2102만회로 나왔다.

1인당 하루 1.58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셈이다.

전체 통행의 약 75%는 수도권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자는 973만명이며 이용횟수는 1499만회였다.

승용차와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 비용과 시간을 비교해 봤다. 통행비용은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하루 9088원, 한달로 치면 19만9936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통행시간은 30㎞ 거리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 평균 최소 32분에서 최대 75분까지 더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는 7점 만점 기준으로 전년(4.76점)과 비슷한 4.78점이었다.

서비스 요소 가운데 '노선체계'(4.87점)와 '환승할인'(4.84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혼잡도'(4.00점)와 '쾌적성'(4.18점)은 만족도가 낮았다.

/김두탁기자 kimdt@

4·16 참사 특별법 국민 서명 "국회로" 15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에서 '4·16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 350만1266명의 서명지가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의 손으로 국회로 옮겨지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은 4월16일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모두 416개 상자에 서명지를 담았다. /연합뉴스

김명수 철회 황우여 내정

정성근·정종섭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야권 반발 클듯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새 후보자로 내정했다.

또 신설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는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국장을 지낸 인사전문가인 정진철 대전복지재단 대표, 세월호 참사 대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후임에는 이성호 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내정했다.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황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장, 감사위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면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황 의원을 내정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황 의원이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내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친박 투톱' 체제를 이루게 된다. 특히 두 사람은 새누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정종섭 안전행정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해 사실상 임명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이 자격없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을 모욕하는 일로 대한민국의 품격과도 맞지 않다"며 "위증과 음주로 점철된 정성근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단연코 반대하며 재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리메이크 꼭 해야만 하나요?

기자 수첩

김 지 민 <연예스포츠부 기자>

일본 후지TV 인기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의 한국판 '칸타빌레 로망스'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청자들은 주인공을 누가 연기할 것인지 궁금해 했다. 하지만 궁금증은 곧 실망감으로 이어졌다. 배우 주원이 출연을 확정했고, 소녀시대 윤아의 출연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원작 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윤아가 아닌 대안을 제시했다. 윤아는 지난 14일 영화 출연과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노다메 역을 고사했고 그 자리는 다시 공석이 됐다.

리메이크 드라마에 캐스팅 논란은 늘 있었다. 원작 팬들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누가 캐스팅 돼도 반대의 목소리가 늘 따라오기 때문이다. 잘 만들어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했다. 그럼에도 리메이크 드라마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만들어졌다. 원작이 이미 한 번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순수 창작 드라마에 비해 실패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분별한 리메이크에 있다. 리메이크는 문자 그대로 재창조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방영된 리메이크 드라마는 무늬만 재창조인 경우가 많았다. 어떤 작품은 원작에 충실한 나머지 한국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사만 한국어인 '복사판'을 만들었다. 또는 원작에서 설정만 빌려와 전혀 다른 드라마를 만들어 원작 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일부 드라마 제작자들은 리메이크를 흥행으로 가는 지름길로 여긴다. 덕분에 창작 드라마가 설 곳은 더욱 없어지고 있다. '본전치기' 리메이크보다 국내 창작 드라마가 더 많이 제작되는 환경이 찾아오길 바란다.

"충성" 김을동 거수경례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 대박' 이끌 준비위 50명 구성

부위원장에 정종욱…문정인·한승주·고건 등 포함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가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총 50명의 위원으로 15일 발족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 부위원장에 주중대사를 역임한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를, 정부 부위원장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외에 민간위원이 30명, 국회의원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는 다음 달 초 열린다.

정 부위원장은 서울대 교수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주중대사를 역임했다. 민간위원 30명은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등 총 4개 분야로 분류해 구성됐다.

위원에는 외교안보 분야에 탈북자 출신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 연구소 실장과 문정인 연세대 교수·한승주 한미협회 회장, 경제 분야에 한범희 전 코레일 센터장, 사회문화 분야에 고건 전 총리 등이 각각 포함됐다.

국회의원으로는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등 여야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한-아세안 정상회의 12월 부산서

● 청와대는 15일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2월 11~12일 부산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올해 25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사무총장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정부, 민간단체 통해 30억 대북지원

● 정부가 농업·축산·보건의료 분야에서 30억원 규모의 대북지원을 민간단체를 통해 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15일 "북한 주민에게 실질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 농·축산 협력 지원 입장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에 남북 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특별 여행경보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무력충돌로 유혈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특별 여행경보가, 서안지구에 특별 여행주의보가 각각 발령됐다. 14일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자 수십여 명이 발생한 이 지역 정세를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청원 정말 몸이 아프나…

새 지도부 공식 일정 불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15일 새 지도부 구성 후 첫 공식 일정에 모두 불참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현충원 참배에 불참한 데 이어 경기도 수원 경기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서 최고위원 측은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과로한데다가 목이 많이 안 좋아져서 오늘 중에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까지는 당무 활동이 어려울 듯하다"고 전했다.

이날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간의 청와대 오찬도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선 패배에 따른 불편한 심기를 첫 일정의 보이콧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과거에도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양 주자 간 과열의 여파가 지도부 출범 이후까지 계속된 적이 있었다.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대표와 이재오 당시 최고위원 간에 벌어진 일이다. 2006년 7·11 전당대회에서 강 대표에 패했던 이 전 최고위원은 경선 과정에서의 색깔론 공격 등에 반발, 일주일간 당무를 거부한 바 있다.

/조현정기자

“임병장, 간부·동료에 무시당해”

육본 “일부 조준사격” 결론…22사단장 등 보직 해임

군 당국이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 사건을 일으켜 전우를 살해한 임모 병장의 살해 동기를 일부 간부와 동료 병사들로부터 사건 전 무시나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육군본부 헌병실장 선종출 준장은 15일 'GOP 총기사고'의 합동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임 병장의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다”며 “임 병장은 지난달 21일 오후 4시 이후 초소 순찰 일지 뒷면 겉표지에 자신을 빗댄 그림이 더 늘어난 것을 보고 입대 후 일부 간부와 동료 병사들로부터 무시나 놀림을 당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을 회상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순찰 일지에는 소초원들의 특성을 묘사한 캐리커처 형식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임 병장에 대해서는 엉뚱하고 어수룩한 캐릭터의 '스펀지밥'과 라면을 좋아하는 것을 희화화한 '라면전사' 등으로 그렸다”며 “임 병장은 다른 소초원과 달리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있고… 자신이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그들은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등 임 병장이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 작성한 메모 내용도 처음 공개했다.

임 병장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범행 당시 총을 난사하지 않고 10여 발을 단발로 사격했으며 일부는 조준사격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군의 검거 작전과정에서 임 병장이 수색 병력과 여섯 차례 접촉했으나 빠져나갔고 이 과정에서 임 병장은 한 발도 쏘지 않았는데도 수색 병력 간 3차례의 오인 사격이 발생하는 등 군의 작전 허점도 드러났다. 군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22사단의 사단장(소장), 대대장(중령), 중대장(대위)을 보직해임하기로 했다.

임 병장이 지난 9일 부소초장 이모 중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GOP 부대 내 '관심병사' 150명은 후방 부대로 재배치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초소 일지에 그려진 임병장 캐릭터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동부전선 GOP 총기사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공개된 초소 순찰일지에 임병장은 스펀지밥과 라면병사로 그려져 있다. /연합뉴스

미래의 법관들 15일 진로체험 현장학습을 나온 학생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법복을 입고 재판정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 지급 25일 다가오는데…

서울 자치구 예산확보 63%

이달 25일이 기초연금 첫 지급일이지만 아직 서울 자치구 대부분이 올해 기초연금 사업 예산의 63%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5일 자치구들이 확보한 예산으로는 9월까지밖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며 구청장들과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하반기에 확보해야 할 예산은 1458억 6000만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889억 3000만원이다. 575억 5000만원을 메워야한다.

특히 금천구와 성동구, 강서구는 기초연금 예산 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해 심각한 실정이다. 올해 예산을 100% 확보한 구는 종로구, 중구, 송파구 등 3곳뿐이다.

서울시는 늘어난 예산을 하반기 추경으로 메울 계획이다. 여력이 없는 자치구들은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추경 또는 예비비 사용으로 충당하겠다는 생각이다. /김민준기자

약수고가 30년만에 철거

20일 자정부터 차량통제

약수고가도로가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약수고가도로는 1984년 12월 강북과 강남을 오가는 차량의 빠른 이동을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15일 교통 체계가 바뀌면서 고가도로의 본래 기능이 약해진데다 오히려 약수역 사거리 상권을 침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판단해 철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0시부터는 양방향 차량 통행이 모두 통제되며 철거 공사는 8월 말까지 진행된다. 공사기간 중 고가도로 아래 동호로 4개 차로는 정상 운영된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기간 교통혼잡을 피하려면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제2롯데월드 개장 더 늦어진다

자문단 “공익 우선” 요청…서울시도 48건 이행 주문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이 더 어려워졌다. 서울시가 저층부 임시사용 여부를 판단하려고 꾸린 시민자문단도 안전, 교통, 지하수위 저하 문제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역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에 앞서 롯데 측이 48건의 분야별 대책을 우선 이행하고, 관련 자료 21건도 새로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자문단의 재검토 요청에 서울시 관계부서들도 롯데 측이 택시 베이(bay) 설치, TSM(교통체계개선) 사업 완료, 중앙버스정류소 설치 등 37건의 대책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보도가 내려앉거나 경계석 일부가 갈라지는 현상을 없애고 점자블록도 재시공하는 등 11건은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재난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계획, 공사차량 운영방안 등 21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시사용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난·방재 분야에선 사전재난영향성 검토를 했는지 확인하고, 내부 인테리어가 끝나면 층별로 연기발생기를 이용해 감지기와 방화셔터가 작동하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교통 분야에선 기존 교통개선대책이 잠실 권역에 미치는 교통 영향을 계량 분석하고 대책을 다시 세울 것을 요구했다. /김민준기자

군사기밀 31건 유출 15일 서울중앙지검이 2008년부터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K 방위산업체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학의 변호사 신청 '퇴짜'

한 때 성접대 의혹에 휩싸였던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4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에게 등록 신청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됐지만 최근 같은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모(37)씨에게 다시 피소됐다. /김민준기자

마포구, '취업한마당' 개최

서울시 마포구가 지역의 취업 알선기관, 직업 교육기관과 연계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주민을 위해 '마포 취업 한마당'을 15일 개최했다.

이날 구청 1층 로비에는 37여 개의 구인 업체가 참여,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

송파구, 클래식연주회 열어

서울시 송파구가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홀에서 클래식 연주회 '한여름 밤의 멜로디'를 연다.

구는 또 23일 오후 8시 오금동 보인중학교 대운동장에서 '찾아가는 한여름 밤의 음악회'를 개최한다.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서울시 동대문구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더불어 함께하는 다육식물 만들기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배봉산 지킴이 ▲친환경 비누 만들기 등이다.

명동, 외국인에 가장 인기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외국인과 시민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이날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출국하는 외국인을 설문 조사한 결과, 명동을 다녀왔다는 외국인 응답자의 비율이 58.9%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단원고 2학년 사회적배려”

경희대 스타트…건국·서강대 등도 “검토 중”

경희대가 2016학년도 입시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희생된 단원고 2학년 학생 전원에게 사회적 배려 전형의 일종인 ‘고른기회전형 Ⅱ’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

경희대는 15일 “‘고른기회전형 Ⅱ’는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고 학생부 등 서류와 면접으로 평가되는 수시 전형으로 현재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를 합쳐 정원 내에서 80명을 뽑는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자, 군인과 소방공무원의 자녀, 다자녀 가구의 자녀, 다문화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조손가정 등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희대는 여기에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2016학년도에 한함)’이라는 입시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세월호에 타지 않았던 2학년 학생들도 ‘심리적 피해자’라는 점을 감안해 이 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경희대는 “단원고 1학년이나 3학년은 아직 적용 계획이 없다”며 “직접 참사를 겪은 단원고 2학년 학생에 한정하는 데다가 탈북자, 의사자 등 다른 응시자와 똑같이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건국대도 단원고 학생들에게 사회적 배려 전형 응시자격을 줄 계획이다. 이미 내부 검토를 마친 상태로 정원 내로 할지, 정원 외로 할지 등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교육부와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서강대, 이화여대, 서울여대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대학정원 외 특례입학에 대해 정원의 1%로 합의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세계수학자대회 기념우표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은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기념우표 3종 100만2000장을 15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기념우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한붓그리기에 관한 오일러의 정리’, ‘파스칼의 삼각형’을 디자인했다고 우정청은 설명했다.

세계수학자대회는 수학계의 올림픽으로 중요한 수학적 업적들을 평가·시상하고, 수학 분야에 관한 토론과 강연이 열리는 전 세계 수학자들의 축제이다. 오는 8월13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경희사이버대 윤영규씨 공무원 문예 대통령상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미디어문예창작 전공 윤영규(50)씨가 제17회 공무원 문예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푸른 감자’라는 시로 대상을 받은 윤씨는 경기도 가평 소방서 119 구급대원으로 재직 중이다.

공무원 문예대전은 공무원의 정서함양 및 문학적 소질 계발을 통해 창의적인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대통령상(대상) 1명, 국무총리상(금상) 6명, 은상 13명, 동상 30명 등 총 50명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교육 안하면 과태료

청소년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하는 시설 운영자가 사전에 안전 교육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에서 5명의 고교생 희생자를 낳은 ‘사설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세부 내용을 정한 것이다.

각종 청소년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에서는 암벽 등반, 물놀이 같은 자체 프로그램을 운용할 때 매번 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 교육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현정기자 jhj@

‘저는 도둑입니다’ 푯말

metro HongKong

처벌 방식 놓고 논란

최근 중국 저장성의 의류시장에서 한 여성이 물건을 훔치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옷가게 주인은 화가 나서 도둑에게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게 했는데 그 방식이 비인격적이어서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도둑은 40대 여성으로 물건을 훔치다 주인에게 적발된 후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주인은 이 여성에게 ‘저는 도둑입니다. 맞아도 쌉니다’라고 적힌 푯말을 목에 걸고 바닥에 꿇어앉혔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던 여성은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로 경비에게 잡혀갔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옆에서 이 여성의 사진을 찍었다.

여성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많은 네티즌은 “무릎을 꿇리고 푯말을 목에 건 채 걸어다니게 한 것은 너무 심했다”, “만약에 이 여성의 아이가 이 장면을 봤다면 이 여성은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 “법에 따라 처벌해야지 개인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처벌 방식을 비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조종사 50% “비행 중 졸아”

metro Brazil

57% dos pilotos já cochilaram durante voos, revela pesquisa

브라질 민간항공사 소속의 조종사 대부분이 부족한 수면과 과도한 업무로 근무 시간 중에 존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설문대상 1122명 중 57%가 ‘그렇다’고 대답을 한 만큼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조종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주 중에 평균 네번 정도 야간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설문을 담당한 엘라이니 마르케지는 “조종사라는 직업이 극도의 집중력을 요하는데 수면 부족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고백했다.

조사에 따르면 주 중 네번의 야간비행을 하는 조종사는 사고 발생률이 36%였고 수면 중 호흡곤란 발생률도 40%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면부족 외에도 고혈압과 비만 등 조종사들의 다양한 애환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는 정부와 항공사들에 전달돼 조종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일요일 아침식사’ 배달합니다

metro France

프랑스 툴루즈에서 일요일 아침 식사를 배달하는 이색 서비스가 인기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사이트(MyBreakfast.fr)를 통해 아침식사를 주문하고 받는 방식이다. 주문을 하면 예정된 시간에 세발 자전거로 커피와 크로와상을 직접 배달해 준다.

툴루즈 라베쥬 지역의 경우 현재 50여명이 정기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인기에 힘입어 사업을 기획한 올리비에 치밥 대표는 도심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또 커피, 크로와상 뿐만 아니라 주스, 샐러드 등 메뉴도 추가했다. 원하는 날짜 전날까지 인터넷에서 식사를 주문하면 아침 8시부터 11시 사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당일 아침에 갓구운 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올리비에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수요를 파악해야했다. 먼저 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기획했다. 그러다 서비스 지역을 넓히니 수요도 증가했다. 일이 많아지면서 배달을 위해 다른 업체들과 협력하는 경우도 생겼다”고 밝혔다. 도심의 25~35세를 대상으로 기획된 이 사업은 인터넷쇼핑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필립 퐁 기자·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이-팔 휴전 논의 시작

이스라엘, 이집트 중재안 각료회의 상정…하마스는 부정적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이 계속되면서 15일(현지시간) 희생자 수가 180명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이집트 정부가 제안한 휴전 제의를 논의하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국방·외무장관 등 8명이 참석하는 안보각료회의를 소집, 이집트의 휴전 중재안을 논의했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이집트의 중재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하마스는 가자지구 봉쇄해제, 팔레스타인 죄수석방 등이 휴전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하마스의 파우지 바르훔 대변인은 “적대행위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약속 없이는 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마스의 또다른 대변인 오사마 함단은 CNN 방송에 “중재안은 장난”이라면서 “팔레스타인을 막다른 곳으로 몰고 이스라엘을 도우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14일 이집트 정부는 세계표준시(GMT) 기준 15일 오전 6시를 기해 휴전하라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제의한 바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다친 팔레스타인 소녀가 14일(현지시간) 가자지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관련국은 이집트의 중재안을 반기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아랍연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전쟁범죄라며 이집트의 중재안을 지지했다.

미국은 존 케리 국무장관을 보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중재를 돕는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15일 이집트 방문에 이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행정수도 라말라를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이스라엘 경찰은 ‘팔레스타인 10대 소년 보복 살해사건’의 유대인 용의자 3명이 18일 법정에 선다고 밝혔다.

용의자들은 지난 2일 동예루살렘에서 16세 팔레스타인 소년을 납치한 뒤 불에 태워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이스라엘 소년 3명이 시체로 발견된 데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유혈 충돌로 이어졌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에펠탑 ‘혁명의 불꽃’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혁명기념일을 맞아 파리의 에펠탑 근처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있다. 혁명기념일은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급습, 프랑스 혁명의 발단이 된 사건을 기리는 프랑스 최대 국경일이다. /신화 연합뉴스

‘세기의 명화 절도단’ 251억원 배상 판결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법원이 네덜란드에서 명화를 훔친 절도범 4명에게 1800만 유로(약 251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14일(현지시간) 범행을 계획한 라두 도가루와 그의 모친 올가 등 4명에게 로테르담 쿤스트할 미술관의 보험사에 이같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2012년 쿤스트할 미술관에 전시된 피카소, 고갱, 모네 등의 작품 7점을 3분 만에 훔쳐달아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지난해 루마니아와 영국 등지에서 체포돼 각각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도가루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도난당한 그림이 진품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제대로 된 보안 장치도 없이 그림을 전시한 것에 대해 미술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선미기자

스마트폰 전자 서명 시대 열린다

통신3사 '스마트 인증' 공동 출시

스마트인증 설치법	스마트인증 사용법
스마트인증 앱 내려받기	스마트인증 전자서명 선택
▼	▼
스마트인증 앱 실행 및 가입	스마트인증 앱 실행
▼	▼
PC에서 공인인증서 가져오기	스마트인증 비밀번호 입력
▼	▼
유심 내장 및 비밀번호 입력	전자 서명 승인 완료

직장인 이민선씨는 스마트폰 전자서명 신규 서비스 '스마트인증'에 가입했다. 스마트인증 앱을 내려받아 가입 절차를 마치면 데스크톱에 저장된 인증서를 유심칩에 연동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이 필요한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스마트폰만으로 간단하고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마칠 수 있다. 이씨는 "공인인증서를 담은 USB를 잃어버릴까 늘 조마조마했다"면서 "복제가 불가능한 스마트폰 유심에 전자서명이 내장돼 금융 거래가 편리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마트폰 전자 서명 시대가 열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는 고객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기반의 공인인증서 서비스인 '스마트인증'을 15일 공동 출시했다.

통신3사는 "최근 각종 악성코드를 통한 공인인증서 탈취 사고가 급증해 금융권과 함께 차세대 공인인증서비스인 스마트인증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전자금융 거래 시 서명 역할을 하지만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해 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어 보안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C와 USB는 해킹 위험성이 크고 보안토큰은 보안성이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일반인에게 낯선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출시된 스마트인증은 스마트폰에 장착된 유심칩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심 기반 인증 방식을 보안 1등급 매체로 지정한 바 있다. 스마트폰 유심과 공인인증서를 일체화하면 외부 복제가 불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뱅킹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다. USB 등에 공인인증서를 따로 저장할 필요도 없다. NFC를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각 통신사 앱 장터나 구글플레이에서 스마트인증을 검색해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이용료는 부가세 포함 월 990원이다.

다만 아이폰 이용자는 스마트 인증을 사용할 수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이폰 유심칩은 스마트인증 앱이 설치가 안 되는 환경"이라며 "iOS 정책상 외부에서 개발된 앱 접근이 어려워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해외여행 필수옵션관광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는 해외여행을 취급하는 12개 대형 여행사와 함께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 표준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 중 하나인 현지 필수옵션관광을 폐지하고 해당 비용을 여행상품 가격에 적용한다. /연합뉴스

취업시켜준다더니…

금감원, '대출사기' 주의보 발령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취업사이트를 통해 한 컨설팅 회사에 채용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 A씨의 주민등록등본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등을 요구했고 별 의심없이 서류를 제출한 그는 이후 회사에서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잠적한 사실을 알게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A씨의 사례처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카드발급업종을 사칭한 한 무역회사는 20대 등 3명을 채용한 후 신용등급등을 올려주겠다고 유혹해 공인증서와 통장사본,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았다. 이후 이 회사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채용자들의 명의로 모두 3000만원을 대출받아 도주했다.

특히 이들은 기존 사례와 달리 피해자들에게 휴대폰까지 제출하게 해 대출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등을 위한 면접이나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비밀번호,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인터넷 대출 등을 받아 편취하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취업희망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안내문을 게재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국 각 대학에도 취업준비생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청년층 학교 졸업후 평균 1년 '백수생활'

청년층(15~29세)이 학교를 중퇴·졸업한 후 첫 일자리를 잡을 때까지 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청년층 인구는 950만7000명, 경제활동참가율은 44.3%, 고용률은 40.5%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는 66만1000명으로 12.5%를 차지했다.

대졸자(3년제 이하 포함)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4년1개월, 휴학경험 비율은 42.7%였다.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5년2개월(남 6년4개월, 여 4년4개월), 휴학자의 평균 휴학기간은 2년4개월(남 2년8개월, 여 1년4개월)이었다.

첫취업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12개월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개월 늘었다. 이는 2006년 5월 이후 8년 만에 최장기간을 의미한다.

1~2년이 소요된 졸업·중퇴생은 11.1%, 2~3년은 5.8%, 3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9.3%였다.

미취업자 32.0%는 직업교육이나 취업시험 준비, 15.4%는 구직활동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육아·가사나 그냥 쉬는 사람도 각각 19.3%, 18.5%를 차지했다.

/유주영기자 boa@

market index <15일>

코스피 2012.72 (+18.84)

코스닥 559.15 (−2.35)

금리(국고채 3년) 2.59 (−0.01)

환율(원·달러) 1027.00 (+9.00)

뉴스&뉴스

'맞춤 양복 명인의 작품은?' 1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2014 맞춤양복기술경진대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이틀에 걸쳐 참가자들이 만든 가봉 상태의 맞춤 양복을 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인 일본 증시 상장

●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일본 증시에 상장된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주식회사는 도쿄증권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라인은 노무라증권을 IPO 주관사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의 공모 청약 규모는 약 1조엔(약 10조700억원)에 이르며 도쿄증권거래소뿐 아니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또는 나스닥으로의 북미 상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라인은 증시 상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방침이다. /장윤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비핸즈카드 제공(제품번호 : BH2137)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 …
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 늘어

서울 강남구에 거주 중인 김경원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지, 해는 넘어가지… 걱정이 크죠."

하미숙씨(56세 · 서초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내년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하태경씨(61세 · 용산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딸은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결혼은 내가 원하는 상대와 해야죠"

대기업 연구원 서승필씨(30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 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급한 마음에 아무 회사나 선택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 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 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 · 매칭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2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GAYEON
SAMSUNGCARD

가연 삼성카드 출시

- 행사기간 : 2014년 7월 1일(화) ~ 12월 31일(수)
- 가연결혼정보 성혼컨설팅 20% 현장할인
- 가연웨딩 웨딩패키지 200만원 이상 결제 시 50만원 결제일 할인(청구할인)

※카드 이용 전에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약관을 통해 자세한 이용조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랭키닷컴 2011, 2012, 2013 기준〉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 2012, 2013 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4년 연속 및 '대한민국 중소 · 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 브랜드 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 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칭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 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입증받기도 했다. 또한 가연은 대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을 총망라한 제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준 높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휴사 미혼직원을 위한 결혼지원 서비스 및 '미팅파티'를 통해 만남의 장을 열고 있다. 서울 테헤란로에는 만남부터 결혼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17층 전관을 결혼 서비스에 특화 시킨 '가연타워'가 있다. 고객의 편의와 만족을 극대화하는 업계 최대규모의 단일 사옥은 가연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랭키닷컴** – 랭키순위란? 최근 12주간 랭키 툴바 6만명 패널의 인터넷 사용정보를 자료로 User Session Visits 기준으로 집계한 순위입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행복한 결혼,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의 인연을 찾는 일이죠"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연결혼정보㈜ 박영빈 팀장은 '행복한 결혼은 노력과 의지의 결과이며, 결혼정보회사도 노력의 주요한 일환'이라고 말한다.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요즘은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부터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계세요. 그 이유는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선 성격부터 가치관 등 다양한 기준들을 세워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도움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의 회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일반 직장인부터 전문직, 공무원 등 결혼정보회사 역시 다양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흔히 직업 좋고 연봉 높은 분들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찾는 만큼 꼭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니까요.

▲ 가연결혼정보(주) 박영빈 팀장

◆결혼정보회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결혼정보회사의 존재 이유는 회원님께서 원하는, 그리고 회원님께 꼭 맞는 배우자를 찾아 인연을 맺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삶과 가정에 결혼을 통해 행복을 불어넣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어요. 성혼 커플들을 볼 때마다 커플매니저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결혼도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전문적인 커플매니저가 도움을 드린다 해도 스스로가 준비가 되고 노력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마음가짐만 굳건하시다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충분히 아름다운 인연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커플매니저와 무료상담하기

가연결혼정보㈜에서는 연중무휴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전화, 방문, 온라인 문의 등 고객의 편의에 따라 원하는 상담이 가능하며 전담 커플매니저가 지정되어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한편 가연은 서울 본사와 동일한 직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LTV 70%로 상향조정 검토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LTV 규제 비율을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외환은행장 "'2·17 합의서' 종신계약 아냐"

하나·외환 조기 통합 강조

김한조(사진) 외환은행장이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의 효과와 혜택을 강조하며 직원들 설득에 나섰다.

15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김 행장은 전날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하나은행과) 2017년 통합 논의도 가능하지만, 그때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보다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직원들을 향한 조기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2·17 합의서는 외환은행의 독립경영과 직원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종신보험계약서'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상황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2017년까지 '2·17 합의'에 따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통합을) 논의하는 게 더 유리하고,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합 원칙과 조건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그룹이 외환은행 인수 후 5년이 되는 2017년까지 독립 경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지난 2012년 체결됐다.

김 행장은 "독립경영 합의가 오히려 '독(毒)'이 될 수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금융권은 인력과 점포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외에는 대안이 없지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은 통합을 통한 수익 창출과 비용 절감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과 그룹의 생존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면 그 시기를 앞당겨 통합 시너지 효과를 모든 직원이 공유해야 한다"며 "조기 통합 논의를 통해 직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환은행은 지난 5월 전산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외환카드 분사에 대한 예비인가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16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외환카드 본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통합에 진통을 겪고 있다. /백아란기자

자산운용·펀드판매 탈법 여전

금감원 "뿌리 뽑겠다"… 상시 점검체계 마련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선물을 매매하는 등 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펀드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86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은행·증권·보험사 등 30개 펀드판매사 181개 점포를 대상으로 미스터리(암행감찰 방식) 쇼핑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에서는 ▲조직적 위법 ▲임직원 탈법 ▲일임 재산 운용 및 관리 미흡 ▲불건전한 갑을(甲乙) 관계 ▲개인·기관 간 고객 차별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특히 다수 운용사의 채권 펀드매니저가 법에서 정한 채권 자산 배분 방법과 트레이더 겸직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 운용사의 임원 등의 탈법 행위도 심각한 수준이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임직원들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과 선물 등을 매매하거나 펀드 운용정보를 활용한 선행 매매를 하는 등 각종 탈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이다.

불건전한 '갑·을관계'에 따른 시장 질서 교란행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 행위의 배경으로 자산운용시장에서 수수료 등을 매개로 한 갑을관계 형성과 '을'의 위치에 있는 회사 등이 거래 단절을 우려해 '갑'의 불법 행위 요구와 은폐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꼽고 있다.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투자부적합 상품에 대한 판매 권유나 불충분한 상품 설명 등이 판매 창구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본부에서의 의지와 영업점에서의 온도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운용사 CEO 간담회와 업무관행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해 자율 개선이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펀드 상품 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미스터리 쇼핑의 상시 점검체계 등을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할 계획이다.

박 부원장은 "미스터리 쇼핑을 연중 상시 점검 체제로 바꾸고 검사와 연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엄정한 검사와 제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씨티카드와 해운대로 여름휴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민미술관 앞에서 씨티카드 모델들이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내 '씨티카드 프라이빗 비치'를 운영하고 씨티카드 고객에게 파라솔, 선베드 이용 등 혜택을 준다. /연합뉴스

최저 7점-최고 70점

상반기 아파트 당첨 커트라인

상반기 청약가점 커트라인이 단지별로 최고 63점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상반기 전국에서 1순위 마감된 47개 사업장의 당첨가점 커트라인을 조사한 결과, 최고점은 70점, 최저점은 7점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84점 만점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나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40%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당첨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지난 2월 공급된 '부산 사직역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 84㎡B와 5월 분양된 '경남 e편한세상 옥포' 84㎡다. 1순위 청약자 중 70점 미만은 모두 낙첨됐다.

반대로 전국에서 가장 커트라인이 낮았던 사업장은 5월 공급된 '경북 경산 한신휴플러스' 84㎡로 7점을 기록했다.

최고점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부산 구서 SK VIEW 1단지' 84㎡A, '대구 화원 이진캐스빌' 84㎡B, '서울 마곡 힐스테이트' 84㎡A다. 점수가 78점에 달했다.

또 평균점이 가장 높은 사업장은 '경남 e편한세상 옥포' 84㎡A로 72.35점을 기록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정부가 청약가점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점수가 높은 수요자들은 유망 분양 물량에 미리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증시침체에 증권사 수익률 뚝!

반기 순익 1000억도 안돼

극심한 경기 불황 등으로 국내 증권업계에서 반기에 1000억원 넘는 순이익을 낸 증권사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투자업계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결회계기준으로 대우증권의 상반기 순이익이 가장 많은 920억원 내외로 추정됐다.

대우증권은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460억원과 460억원 내외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를 자회사로 둔 증권사들도 상대적으로 약진했다.

한국금융지주의 상반기 순이익은 890억원 안팎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투신운용과 한국밸류자산운용이 자금유입 등으로 꾸준한 개선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미래에셋증권도 올해 상반기에 810억원을 넘는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관측됐다. 미래에셋증권은 1분기 450억원에 이어 2분기 36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전망된다.

메리츠종금증권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 추정치는 578억원으로 제시됐다. 키움증권의 순이익은 상반기에 250억원 정도로, 1분기 110억원에서 2분기 14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구조조정 비용 탓에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삼성증권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460억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삼성증권은 1분기에 410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300여명의 희망퇴직 비용 때문에 2분기 순이익은 50억원 내외로 감소한 것으로 관측됐다. 우리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에 140억원 내외의 순손실을 낸 것으로 전망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거비용 상승과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을 고려하면 개인투자자의 주식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

"품격 높이고 가격 낮추고"… '2015 K7' 베일 벗다

앞모습 바꾸고 레드브라운 추가 디젤은 후속모델에 탑재할 예정

기아차가 15일 선보인 '2015 K7'. /기아차 제공

기아자동차가 15일 서울 압구정동 국내영업본부 사옥에서 2015년형 K7을 공개하고 본격 시판에 나섰다.

새 모델은 'K9 2014'처럼 벌집 모양의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을 달았고, 새 디자인의 19인치·17인치 휠을 적용해 외관을 단장했다. 실내는 기존 우드그레인 대신 나뭇결 무늬를 살린 새 우드그레인을 적용해 분위기를 바꿨다. 글로브박스 버튼과 스피커에 크롬을 적용하는 한편, 레드 브라운 인테리어를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밖에도 앞좌석 통풍시트와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자외선 차단 윈드 실드, 에어로 타입 와이퍼를 전 차종에 기본 적용했다.

K7 2015는 내비게이션을 옵션화하는 대신 2.4 프레스티지 모델은 기존 모델 보다 62만원 인하한 2960만원으로 책정됐다. 3.0 프레스티지 모델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카드타입 스마트키 등을 기본 적용했다. 가격은 130만원 인하해 3300만원. 3.3 노블레스 모델은 신규 19인치 크롬 스퍼터링 알로이 휠까지 적용하고 가격은 244만원 인하한 3950만원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K7 2015는 내외장을 개선해 재탄생했다"며 "세련되고 차별화된 디자인, 최적의 상품성과 더불어 합리적인 가격을 갖춰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아차 관계자는 "K7의 경우 2015년에 풀 모델 체인지(완전 변경)가 예정돼 있어 디젤 모델은 추가하지 않았다"면서 "내년에 선보일 K7 후속에는 디젤 모델이 탑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아차는 신규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과 트렁크 내부 하단 크롬 장식, 내장 주요부 크롬 포인트 추가, 신규 하이브리드 전용 엠블럼을 추가한 2015년형 K7 하이브리드 700h도 선보였다.

2015년형 K7 하이브리드 700h의 가격은 2.4 럭셔리 3450만원, 2.4 프레스티지 3620만원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내수 활성화위한 '기(氣)세일' 15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홈플러스 임직원, 모델들이 '대한민국 기(氣)세일'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17일부터 8월 13일까지 4주간 전 상품군에 최대 7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기차 배터리' 공급 확대 MOU

삼성 SDI·BMW 수조원대 규모… 글로벌 사업도 협력

삼성SDI가 BMW그룹과 전기차 배터리 셀 공급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5일 삼성SDI에 따르면 이번 MOU 체결로 중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춰 BMW그룹에 공급하는 배터리 셀 물량을 확대하게 됐다. 공급 규모는 수조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삼성SDI측은 설명했다.

양사는 차세대 소재 등 관련 기술의 장기적인 공동 개발과 향후 글로벌 사업 전개를 위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SDI는 BMW그룹에 향후 수년간 BMW i3, BMW i8 및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을 위한 배터리 셀을 공급한다.

BMW그룹은 이미 2009년부터 삼성SDI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BMW i3와 i8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다. 이후 BMW i의 성공적인 서브브랜드 론칭과 함께 전기화 전략을 강조하면서 삼성SDI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박상진 삼성SDI 사장은 "BMW i3 및 i8의 성공적 협력에 이어 추가 BMW 모델에도 삼성SDI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장착한다는 것은 삼성SDI의 미래 기술과 양산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양사 모두 이 파트너십 확대가 미래 전기차 기술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5.5인치 아이폰6 내년에 나올 듯

4.7인치 제품은 연내 출시 유력

애플 버전의 패블릿을 올해는 보기 힘들게 됐다.

패블릿은 5인치 이상의 대화면을 채택한 스마트폰으로 소형 태블릿PC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다.

대표적인 제품이 삼성의 '갤럭시노트' 시리즈다.

15일(한국시간) 미국 경제전문 방송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5.5인치 액정을 장착할 예정인 애플의 아이폰6가 부품 수급 문제로 발매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애플은 5.5 인치 모델의 금속 외장과 인셀 방식 터치스크린에서 생산 문제를 겪고 있다. 아울러 5.5인치 버전에 쓰인 사파이어 유리가 바닥에 제품을 떨어뜨렸을 때 깨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신은 이런 문제점들 탓에 5.5인치 모델의 발매가 2015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4.7인치 버전의 아이폰6는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겨냥해 연내 출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적으로 애플은 아이폰 새 모델을 9월께 공개한다.

/박성훈기자 zen@

스마트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본격화

NIPA 스마트콘텐츠센터 입주기업 모집

정부 스마트콘텐츠센터가 스마트콘텐츠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에 본격 나선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창업 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콘텐츠센터를 통한 지원 사업이다. 스마트콘텐츠는 그 특성상 번역작업이나 현지화 작업을 거치면 글로벌 진출이 비교적 쉬운 분야다. 이런 이유로 스마트콘텐츠센터는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NIPA는 현재 스마트콘텐츠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마트콘텐츠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입주기업 신청은 18일 오후 3시까지 NIPA 웹사이트(www.nipa.kr)에 하면 된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보유 콘텐츠·사업모델의 우수성과 독창성, 성장성이 주요 평가기준이다.

/이재영기자

스위스 장인 명품 시계 조립 스위스의 대표적 명품 시계 브랜드 '태그호이어'가 150여년 역사와 기념비적 시계들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라 메종 월드투어 전시회'를 15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신세계센텀시티에서 열었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삼성·애플이 꽉 잡았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5월 판매량 발표… 샤오미 포함 눈길

지난 5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삼성전자와 애플, 샤오미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홍콩 기반의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5월 주요 35개국 이동통신 시장 집계 결과 애플 '아이폰5s'가 시장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삼성전자 '갤럭시S5'가 2위에 올랐지만 판매량에서 1위와 다소 격차가 있었다고 전했다.

갤럭시S5에 이어 삼성전자 '갤럭시S4'와 '갤럭시 노트3'가 나란히 3,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갤럭시S4 미니', '갤럭시 그랜드2'도 8위와 10위를 차지하며, '톱 10'에 5개 제품이 포함됐다.

애플은 '아이폰5c'와 '아이폰4S'가 5, 6위에 오르며 10위 내에 3개 제품이 위치했다.

'중국의 애플'로 불리며 주목 받고 있는 샤오미도 'Mi3'와 '홍미' 두 제품을 7위와 9위에 올렸다. 샤오미는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조사에서 지난 2월에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톱 10'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후 저가 경쟁력을 앞세워 자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대표 글로벌 기업이라 불리는 LG전자 제품은 '톱 10' 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LG전자는 올해 2월 'G프로2'를 출시한 데 이어 5월 'G3'를 출시했다.

G3는 출시 초기 글로벌 판매에서 호조를 보였지만 5월 말 출시돼 이번 '글로벌 판매 스마트폰 톱 10'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기자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상량식'

내년 2월 준공 예정

내년 2월 준공을 앞둔 LG유플러스의 용산사옥 신축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32에서 '용산사옥 신축공사 상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상량식은 '집을 지을 때 기둥 위에 지붕을 떠받치는 보를 올리는 의식'을 말한다.

이날 행사는 그 동안의 건축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상량고사, 상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상량고사에서 사고 없는 안전한 준공을 바라는 한편, 새로운 '용산시대'를 열어 갈 LG유플러스의 힘찬 도약을 함께 기원했다.

2015년 2월 말 준공 예정인 LG유플러스 용산사옥은 연면적 5만5000여㎡, 지하7층, 지상21층 규모다. 지상4층 이상은 업무시설로, 지상3층 이하는 휘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 지원시설로 각각 꾸며진다.

이상철 부회장은 이날 상량식에서 "LG유플러스의 미래를 열어갈 새 보금자리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희기자 ssh814@

파주LCD단지 중심상권에 5층건물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일대 파주LCD산업단지 중심상권에 추천할 만한 매물이 30억원에 나왔다.

건물연면적 1166.28㎡ 규모의 5층 건물로 ▲1층 일반음식점 ▲2층 다중시설(씨네마월드) ▲3~5층 원룸 33실이 들어서 있다. 이 가운데 원룸은 공실이 없는 상태로 풀옵션 구성이다.

보증금 12억원에 월임대료 1000만원을 받고 있다. 대출금은 10억원으로 8억원으로 실투자가 가능하고, 연간 8%대의 수익률이 기대된다. 2011년 말 준공된 새 건물이다. 문의 010-7415-0712

2020년엔 유지보수가 중심

건산연, 건설시장 전망… 선진국형 전환 시급

우리나라 건설시장이 2020년 이후 신축 시장은 축소 쇠퇴하기 시작하고, 주택 리모델링, 도심재생, SOC 시설물의 유지보수·재개축 등과 관련한 유지보수 시장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측하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15일 '국내 건설투자의 중장기 변화 추이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건설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13~2020년에 0.8~1.5%, 2020~2030년 0.6~0.7%로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 "2020년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는 이유를 신규 시설물의 신축 시장이 축소되어 쇠퇴 국면으로 진입하는 반면, 대신 유지보수 시장은 성장 국면에 진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13% 수준인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0년에는 11.0~11.5%에 이르고, 2025년에는 10.0~10.5%, 2030년에는 9.2~9.7%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현재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 되는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평균적으로 11%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만큼, 202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이 본격적으로 선진국형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정부 정책과 건설기업 전략 모두 선진국형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향후 정부는 도심재생, 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및 SOC 시설물의 질적 고도화 등 기존 시설물의 재생과 유지보수 투자 활성화 관련 정책적 기반과 재원마련에 중점을 둬야 하며, 건설기업은 선진국형 시장 전환에 따른 시장 창출형 전략으로의 전환, 사업 범위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2020년 이후 기존 건축물 및 SOC 시설물의 유지보수 투자가 선진국 수준으로 당장 활성화되긴 어렵지만, 도심재생, 주택 리모델링, SOC 시설물의 질적고도화 등과 관련된 유지보수 투자 활성화정책이 적극 추진된다면, 2020년 이후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0%대를 지속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탁기자 kimdt@metroseoul.co.kr

최신영화를 스마트폰 배경으로 LG전자는 개봉을 앞둔 최신영화를 스마트폰 배경으로 꾸밀 수 있도록 해주는 '홈테마' 이벤트를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LG전자 제공

협력사들 '팬택 살리기' 앞장섰다

"부품 대금 10~30% 안 받겠다"… 17일 집회

'팬택 살리기'에 팬택 협력사도 동참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팬택 협력사 60여개 업체는 14일 '팬택 협력사 협의회'를 구성하고 팬택으로부터 받아야할 부품 대금 10~30%를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팬택 협력사 협의회는 홍진표 하이케이텔레콤 대표이사를 협의회장으로 선임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 찾기에 나섰다.

협의회측은 "팬택의 워크아웃 사태가 이해관계자들의 수수방관으로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며 "현재 팬택 협력업체들은 팬택에 부품 공급을 못해 직원들 대부분이 무급휴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팬택의 정상화가 지체될수록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이번주 중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70~80% 협력업체들이 부도를 막지 못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부품 대금 일부를 받지 않기로 결의함과 동시에 정부, 채권단, 이동통신사의 팬택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17일 SK T타워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향후 청와대와 국회에서도 집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팬택은 그 동안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이동통신시장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팬택 550여개 협력업체 종사자 8만여명의 일자리와 30만여명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팬택의 워크아웃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팬택 직원들도 '팬택 살리기'에 동참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팬택의 사내 인트라넷 토론마당에는 '회사에서 공기계를 직접 팔면 안되나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같은 주장은 이통사가 팬택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판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공기계를 직접 팔아 회사 자금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는 직원들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한 찬반투표도 진행중인데 직원들과 경영진의 공식 대화채널이기도 한 주니어보드는 이번 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 경영진에 공식적으로 '우리 구성원이 회사에서 직접 우리 제품을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을 할 예정이다.

한편 팬택 살리기의 키를 쥐고 있는 이통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과연 이통사가 팬택의 출자전환 참여 여부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부·재계 충돌

issue&view
온실가스 배출거래 논란

정부, 2020년 30% 감축 목표로 2015년부터 시행
재계, “27조5000억 추가 부담”… 전면 재검토 요청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내년부터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놓고, 경제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며,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개최된 ‘제6회 기후변화주간 행사’ 개막식에서 윤성규(오른쪽에서 세번째) 환경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퍼즐을 완성한 후 박수를 치는 모습. /뉴시스

- ① 산업: 친환경 연료대체 등 **81.3백만톤(18.5%) 감축**
- ② 수송: 스마트 교통시스템(ITS) 구축 등 **34.2백만톤(34.3%) 감축**
- ③ 건물: 고효율 냉·난방기기 보급 확대 등 **45백만톤(27.0%) 감축**
- ④ 공공/기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운영 등 **4.46백만톤(25.0%) 감축**
- ⑤ 농어업: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등 **1.48백만톤(5.2%) 감축**
- ⑥ 폐기물: 폐기물 에너지화 등 **1.71백만톤(12.3%) 감축**
- ⑦ 전환/발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64.9백만톤(26.7%) 감축**

◆국가 간 배출허용량 거래가 골격

정부는 오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제정·공포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허용량을 부여한 후 국가 간 배출허용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지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한 후, 국가마다 일정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한도를 넘는 경우, 정해진 양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토록 했다.

당초 국가사이의 거래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나라들이 민간 기업에도 오염물질을 할당해 민간기업 차원의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소로 한국거래소를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 배출허용총량을 16억4000만 톤으로 정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고용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저탄소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그간 탄소세와 여러 가지 규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탄소 정책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왔다”고 말했다.

◆산업경쟁력 저하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계는 제도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계는 우선 국제동향을 감안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에서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우리가 먼저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배출권 거래비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제도시행으로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도 있어 생산·고용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전망치는 할당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경제지표 ▲에너지설비 비중 ▲산업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해 산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과 2013년 두차례 배출전망치를 산정했지만, 지난해 산정한 배출전망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는 지금은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친환경 기술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때”라며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행복나눔재단, 착한 투자 나선다

사회적기업과 임팩트투자 계약… 금융기관보다 우호적 조건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인 SK행복나눔재단은 15일 ‘마이크임팩트’ ‘트래블러스맵’ ‘로앤컴퍼니’ ‘로코모티브랩스’ 등 사회적기업과 사회가치 기반의 임팩트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기업 희망 키우기에 나선다.

임팩트투자는 제도권 금융보다 우호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이다. SK행복나눔재단은 사회적 성과와 연계한 임팩트투자 모델 수립을 통해 성장잠재력 높은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하며 양적, 질적인 성장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임팩트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SK행복나눔재단 임팩트투자는 ▲성장잠재력 우수한 사회적기업 발굴·선정 ▲선정기업 대상 사업성&사회적 가치 심사·평가 ▲투자방식 협상 및 임팩트투자 계약체결·집행 등의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SK행복나눔재단은 올해 첫 임팩트투자 대상으로, 강연행사 전문 사회적기업 ‘마이크임팩트’를 선정해 ‘청년의 정신적 빈곤 치유에 기여하는 힐링 강연문화 확산’이라는 소셜미션 및 사업 성장성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했다. 또 여행부문 사회적기업 ‘트래블러스맵’은 ‘공정여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임팩트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여 투자를 결정했다.

이밖에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법률정보 비대칭과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는 사회적기업 ‘로앤컴퍼니’와 학습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로코모티브 랩스’에 각각 투자한다.

SK행복나눔재단이 4개 사회적기업과 사회가치 기반의 임팩트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사회적기업 희망 키우기에 나섰다. 유항제 SK행복나눔재단 총괄본부장(사진오른쪽)이 한동헌 마이크임팩트 대표와 임팩트투자 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 제공

유항제 SK행복나눔재단 총괄본부장은 “국내 임팩트투자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건강한 자본의 유입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임팩트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주체와 협력해 국내 임팩트투자 생태계 기반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클라우드산업협회 새 회장 송희경씨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는 15일 엘타워에서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로 협회명을 변경했다. 또 신임 회장에 KT 송희경 본부장을 추대했다.

송희경 본부장은 대표적인 IT 여성 리더로, 현재 KT G&E부문 기업IT 사업본부장겸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단장을 역임하고 있다.

송 회장은 취임사에서 “기존 서비스 중심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협력과 권익을 대변하는 사업자 단체로 거듭나고자 명칭을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로 변경했다”며 “클라우드뿐 아니라 다양한 이업종의 기업과 협업해 클라우드 융·복합 산업의 활성화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협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공공시장 활성화 및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게임·교육·의료·금융 등 타산업과 상생협력모델 발굴 및 사업화 추진을 통해 지속성장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평생직장 꿈꾼다면 지원하세요"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16) 대림바스

생산직 평균 연수 무려 30년
퇴직금 누진제 장기근속 우대
1년에 6일 리프레시 유급 휴가

"공무원·공기업 등을 제외하고 정년퇴임을 기대할 수 있는 직장이 과연 있을까."

종합 욕실 브랜드로 유명한 대림바스는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에 몇 안되는 회사 중의 하나다. 600여명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생산직은 무려 30년, 관리직도 15년을 훌쩍 넘는다. 국내 100대기업의 평균 근속연수인 11.6년(취업포털 사람인 조사)보다 1.3~2배나 길다. 게다가 수습 6개월만 거치면 99%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제조업에 흔한 비정규직은 아예 없다. 고용안정성에서 그야말로 최고수준이다.

대림바스의 자랑거리는 이것만이 아니다. 일반기업에서는 드물게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퇴직금 누진제란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금 적립비율이 높아지는 제도다. 따라서 5년이상 근속하면 다른 회사에 비해 2~3배 많은 퇴직금을 챙길 수 있다. 공공기관들도 비용부담 때문에 줄줄이 폐지하고 있지만 대림바스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

◆식비·교육비 100% 지원

휴가제도도 다른 기업 직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3일씩 리프레시 유급 휴가를 준다. 특히 리프레시 휴가는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업 휴가와는 차이가 크다. '잘 쉬어야 일도 잘한다'는 회사 방침에 따라 리프레시 휴가를 쓰지 못한 팀

대림바스 야구 동호회 '대림베어스'.

원이 있으면 해당 팀장을 문책까지 한다.

직원들의 식비와 교육비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회사 인근 맛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학원·교육센터의 교육비도 100% 지원한다. 여기에 우수사원으로 뽑히면 중국 상하이 욕실 박람회, 이탈리아 밀라노 가구 박람회 등을 직접 참관할 수 있다.

연봉도 웬만한 기업에 뒤지지 않는다. 대졸 초임 연봉은 3000만원 수준. 성과급과 생산장려금은 따로 받을 수 있다.

◆하반기 수시채용 예정

대림바스가 이처럼 직원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은 국내 욕실 역사를 새로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이 큰 역할을 했다. 1966년 설립이후 원피스 사이폰제트 양변기, 친환경 물 안 쓰는 소변기 등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2012년에는 업계 처음으로 1000억원 매출을 돌파했다. 지난해 매출은 1154억원, 영업이익은 55억원이다. 시장점유율은 11년 연속 1위다.

대림바스는 이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수시채용을 통해 15명 내외의 경력직을 뽑을 예정이다.

신세현 인사팀 팀장은 "대림바스는 평생직장을 꿈꿀 수 있는 회사"라며 "10년 이상 오랜 시간 대림바스와 함께 할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대림바스 직원들이 서울 논현동 본사 1층에 마련된 쇼룸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스펙보다 애사심 인재 원합니다"

"구직자들에 대한 대림바스의 평가는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전화를 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전화 받는 태도는 물론 면접 장소에서 대기할 때의 모습, 대화 내용도 평가 점수에 들어갑니다."

신세현(사진) 인사팀 팀장은 능력이 뛰어난 인재보다는 인성이 좋고 애사심이 높은 구직자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구직자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독특하다.

▶▶4~5년 근무할 사람은 아예 뽑지 않는다. 이를 걸러내기 위해 100점 만점에 20점을 기타 점수에 할당했다. 스펙이 훌륭하고 면접에서 아무리 뛰어난 답변을 하더라도 전화태도 등을 평가한 기타 점수가 나쁘면 합격하기 힘들다.

▶스펙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인가.

▶▶스펙 중에는 성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학점과 각 직무에서 필요한 자격증만 본다. 해외어학연수, 대회활동 등의 스펙 없이 합격한 사례가 많다.

▶또 다른 합격 노하우를 공개한다면.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외워서하는 것은 인사담당자들도 알아챈다. 성실하게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창업대회 'SXSW V2V' 라스베이거스서 개막 벤처 스타트업들을 위한 창업컨퍼런스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 V2V'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더 코스모폴리탄 호텔에서 14일(현지시간)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글로벌 K-파이오니어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스타트업 10곳이 중소기업청 산하 창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별도 전시장을 마련하고 마케팅 활동에 나섰다. /연합뉴스

자격증·대외활동 신경을

취업하려면 토익·학점보다는 자격증·대외활동을 노려라.

1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경력 2년 미만인 직장인 회원 481명을 대상으로 입사 합격 스펙을 조사한 결과, 평균 토익 점수는 759.4점, 자격증은 평균 2개, 학점은 '3.7~3.9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사원들이 보유한 합격스펙 중 학점은 '3.7~3.9점'이 29.9%로 가장 많았다. 자격증은 90.2%가 보유하고 있었다. 2개 보유가 23.3%로 가장 많았다. 8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도 3.5%로 나타났다.

스펙을 보지 않는 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스펙 쌓기 열풍은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고 인크루트는 설명했다.

합격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스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자격증'(20.2%)과 '대외활동'(16.4%)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학벌(15.6%), 공인 영어점수(12.7%), 학점(6.7%)이 뒤를 이었다. /이국명기자

"요즘 뭐해" 보단 "기회 찾아올거야"

구직자 비수 꽂고 희망 주는 말…말…말…

구직자들에게는 취업여부를 간접적으로 돌려 묻는 것을 삼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 645명에게 구직 중 가장 스트레스 받은 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요즘 뭐하고 지내"가 25%로 가장 많았다.

'취업은 했어'라며 취업여부를 직접적으로 묻는 말(16.4%), '그냥 아무 곳이나 들어가'라며 무시하는 말(15.8%), 'OO는 OO기업에 합격했던데'라는 등의 남과 비교하는 말(13.5%)도 상처를 받은 말로 거론됐다. '올해 안에는 해야지'라면서 취업을 재촉하는 말(10.5%), '취업 준비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냐'라고 질책 또는 지적하는 말(4.7%), '부모님이 너 뒷바라지 하느라 힘드시겠어'라는 식으로 부모님을 언급하는 말(4.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같은 상처는 직계가족(27.1%), '부모님 친구 등 가족의 지인'(21.9%)으로부터 많이 받는다고 구직자들은 답했다.

한편 위로를 받은 말로는 '걱정 마, 분명 기회가 찾아올 거야'와 같이 희망적인 말(20.9%)이 1위에 올랐다. '너뿐만 아니라 다들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라면서 어려움에 공감해주는 말(20.3%), '너는 충분히 좋은 데 들어갈 능력이 있어'라는 칭찬의 말(16%), '네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해'라고 용기를 주는 말(15.7%) 등도 구직자에게 힘을 주었다.

위로의 말이 듣고 싶은 순간으로는 '돈이 없어서 구직활동의 제약이 있을 때'(18.5%)를 첫 번째로 꼽았다, '최종 합격을 앞두고 아쉽게 떨어질 때'(14.3%), '서류에서 떨어질 때'(13.6%), '취업 준비 요령 등을 몰라 막막할 때'(13.3%), '늦은 시간까지 구직활동으로 지칠 때'(9.3%) 등이 뒤를 이었다. /이국명기자

제이에스가든의 해선요리.

강강술래의 영양전복갈비탕.

"'해양(海洋)식' 보양 어때요"

낙지·전복 등 제철 맞은 수산물 점차 인기

'초복'이 18일이다.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보양식을 찾아 나서고 있다.

대표 보양식이던 닭·오리의 수요가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주춤해지자 전복이나 장어·낙지 등 수산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외식업계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 각종 수산물을 더한 이색 보양식을 선보이고 있다.

먼저 놀부의 맑은 설렁탕 브랜드 '담다'는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한 낙지를 넣은 이색 설렁탕을 내놨다.

이 음식은 담백한 설렁탕에 피로회복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한 낙지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 끓여 맛에 영양을 더했다.

'강강술래'는 전남 완도에서 공수한 최상급 활전복을 넣은 특선메뉴 '영양전복갈비탕'을 출시(홍대·청담점 제외)해 고객들의 원기회복을 돕고 있다.

갈비탕 특유의 감칠맛과 구수한 맛에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보양 해산물이 더해져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특징이다. 타우린·단백질·비타민이 풍부한 전복은 기력보충과 피로회복에 좋아 원기보충과 입맛을 돋우는 데 제격이다.

CJ푸드빌의 한식뷔페 '계절밥상'은 제철 식재료로 만든 여름 신메뉴 10종을 새롭게 출시했다.

보양식으로 잘 알려진 장어를 활용한 '장어탕' '장어강정' '일본식 장어 지짐이'가 인기를 얻고 있다. 장어는 불포화지방산이 콜레스테롤 축적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특히 껍질의 단백질 성분은 위장을 보호하는 효능이 뛰어나 위장이 예민해지기 쉬운 여름철 섭취하기 좋다.

차이니즈 레스토랑 '제이에스가든'은 여름 보양 메뉴로 바로 건져낸 활어를 손질해 만든 생선찜을 선보였다. 제철 생선을 스팀방식으로 쪄내 특제 간장 소스로 요리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지난 13일 The-K호텔서울에서는 한국 재즈의 전설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레전드 오브 재즈'가 열렸다. 사진은 전설들의 공연 모습.

/The-K호텔서울 제공

도심 호텔서 더위 씻고… 추억 쌓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지금 여름밤을 즐기는 이들을 위한 호텔의 특별 이벤트가 가득하다. 여름에만 만날 수 있는 도심 속 호텔들의 문화 공연 이벤트를 즐겨보자.

◆매주 다양한 파티 열려

우선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가 오는 29일 '여름날, 전망 좋은 방'을 선보인다. 일본과 유럽에서 활동하는 오보이스트 사토키 아오야마의 오보에 클래식 실내악 연주와 함께 네덜란드 출신의 사진작가 빌렘 반 덴 후드의 아트워크를 미디어 월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또 공연 후에는 연주자와 함께 하는 칵테일 파티가 이어진다.

DJ DOC와 개리&정인, YDG 양동근 등의 화끈한 라인업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서울 워커힐 호텔의 '2014 워커힐 풀사이드 파티'가 19일과 20일 이틀간 열린다. 현재 호텔 공식 페이스북에서는 자신의 수영복 사진을 댓글로 달아 응모하는 '여름 휴가 추억팔이 포토 콘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호텔은 8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2014 워커힐 비키니 파티'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켄싱턴 제주 호텔은 18일 가든 풀사이드에서 '2014 풀사이드 파티 with DJ G. Park'으로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한다. 흥겨운 디스코&펑키 하우스 뮤직 퍼포먼스와 함께 생맥주 또는 무알콜 펀치 3잔이 제공되며 파티 이후 본격 시작되는 애프터 파티가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이와 함께 롯데호텔서울은 클럽 DJ의 화려한 뮤직 퍼포먼스와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BEYOND THE POOL PARTY'를 오는 25일과 8월 8일·15일에 각각 진행한다.

이에 앞서 The-K호텔서울은 지난 13일 한국 재즈의 전설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레전드 오브 재즈(Legends of Jazz)'를 개최해 고객들에게 환상적인 무대를 선물했으며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도 같은 날 저녁 명화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해설이 함께 하는 '시네마 파라다이스 영화음악 콘서트'를 선보였다.

/황재용기자 hsoul38@

여름특수를 잡아라

유통업계 이벤트 봇물

/세븐일레븐 제공

유통업계가 각종 사회 이슈로 침체된 경기 회복과 여름철 특수를 겨냥해 이벤트 공세를 벌이고 있다.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쉬운 여름 휴가철, 세일 행사만 잘 활용해도 보다 합리적인 비용에 바캉스 준비할 수 있어 소비자들도 잘 활용하면 이득이 된다.

먼저 식음료 업계의 행사들이 아기자기하다. 던킨도너츠는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를 오픈하고 아이스음료를 마셨을 때 느껴지는 시원한 표정을 자신만의 사진으로 재미있게 표현하면 즉석 경품을 준다. 오는 31일까지로 1일 3회 참여 가능하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도 31일까지 여름 한정메뉴 '라틴썸머'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라틴, 어디까지 가봤니?' 이벤트를 벌인다. 홈페이지에서 지도 위 10개의 라틴 나라를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클릭하면 라틴 여행에 자동 응모된다. 1일 1회만 클릭 가능.

편의점 세븐일레븐는 31일까지 디저트 '우유빙수설' 구입고객에게 전문 브랜드의 반지·목걸이 등 총 711개의 주얼리 상품을 증정한다. 같은 기간 구매 영수증을 촬영해 홈페이지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1등에게 구매금액의 1만배(1000만원 한도)를 여름휴가비로 지급하며 2등(2명)과 3등(4명)에게도 구매금액의 100배, 10배의 휴가비를 각각 지급한다.

동원F&B에서 운영하는 동원몰은 오는 30일까지 '건강푸드 참치캔 이벤트'를 벌인다. '빈 칸 채우고, 참치 받자' 이벤트를 통해 참치캔과 관련된 세 가지 퀴즈의 답을 맞추면 추첨을 통해 85명에게 동원참치 85g 10캔을 증정한다.

커피체인점 코나빈스는 오는 8월 말까지 매장에서 하이네켄을 구매하면 그늘막 텐트 등을 제공한다.

업체마다 할인행사도 푸짐하다. 슈즈 멀티 스토어 ABC마트는 8월 3일까지 '2014 상반기 결산 세일'을 통해 여름 신상품을 포함한 전품목에 최대 70%까지 할인해 준다.

천연화장품 브랜드 낫츠는 21일까지 베스트 제품을 최대 30%까지 세일 판매한다. 재구매 고객들은 기존 재구매 할인을 포함해 40%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싱가포르항공은 22일까지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싱가포르 왕복 항공권은 47만6700원부터(이하 세금 및 유류할증료 포함),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쿠알라룸푸르·태국 방콕·푸켓·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은 62만2600원부터 구매가 가능한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다. 사용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정영일기자

정성애 교수,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동물모델 연구

정성애(사진)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 교수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4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에서 '제24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정 교수는 대한소화기학회지에 게재된 '덱스트란 황산나트륨(Dextran Sulfate Sodium, DSS) 장염 동물모델에서 벤족사졸(Benzoxazole) 유도체인 B-98의 장염 예방 효과와 T세포 분획 변화'란 제목의 논문으로 학회 추천을 받았으며 심사 결과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교수는 "실험을 토대로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새로운 동물모델 연구를 하고 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동 연구를 통해 좋은 성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창의적인 연구활동으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황재용기자

바캉스 패션도 장소따라 다르게…

리조트·바다·관광 휴양지 등 맞춤형 연출 즐기자

/예츠·에스비·베카앤벨·소다·마나스 제공 /카파·오카비 제공

본격적인 휴가 시즌에 돌입했다. 여름 휴가지에서도 센스 있는 패션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바캉스 패션도 준비 해야 한다.

관광지나 로맨틱한 휴양지·워터파크·여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강이나 계곡 등 여름에는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가 많은 만큼 장소와 활동 유형에 따라 패션 연출을 달리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저기 볼 게 많아 이동이 잦은 관광지에선 시원하고 편안하게 입는 게 좋다. 여름 느낌이 물씬 나는 화려한 패턴의 점프 수트나 시원한 색상의 롱 원피스가 관광지에선 제격이다.

이동이 많은 만큼 높고 불편한 신발보다는 낮고 편안한 신발을 추천한다. 이번 여름 잇아이템인 에스빠드류 슬립온이나 슬림한 디자인의 스니커즈는 편안한 착화감 뿐 아니라 다양한 패턴이 가미돼 여름 포인트 스타일링으로 제격이다.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리조트에서는 화려한 패턴의 숏팬츠나 쉬폰 원피스로 로맨틱한 휴양지 패션을 완성할 수 있다. 특히 푸른 색상의 쉬폰 원피스는 시원한 마린룩으로 캐주얼 하면서도 하늘하늘한 소재가 여성미를 살려준다.

늘씬한 각선미를 뽐내고 싶다면 굽이 있는 웨지힐을 추천한다. 웨지힐은 편안하면서도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 휴양지 패션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래쉬가드의 인기가 뜨겁다. 래쉬가드는 물놀이 시 체온유지와 자외선 등 외부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는 기능성 의류이다. 디자인과 색상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패션에 민감한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부상했다.

래쉬가드 만큼이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여름철 대표신발이 있다. 바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젤리 슈즈. 푹신하고 가벼운 착용감과 다양한 색상의 디자인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워터파크나 수상레저를 즐길 때 래쉬가드와 젤리 슈즈 하나면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멋쟁이 남성 잡기 마케팅

특화 화장품·클렌징 디바이스 출시 활발

최근 자신을 꾸미는 것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멋쟁이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의 화장품 구매 비용은 세계 1위에 달할 정도로 뷰티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세 이상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10명 중 1명이 BB크림 및 색조화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헬스&뷰티 스토어 CJ올리브영의 경우 올들어 CJ 올리브영 매장을 찾은 남성 고객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그루밍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뷰티업체들이 남성 특화 제품을 출시하는 등 '맨즈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업체들은 잦은 면도와 음주·흡연 등으로 예민해진 남성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화장품을 선보이고 있다. 코리아나화장품의 '발효녹두옴므 맑고 깊은 2종'(사진 중앙)은 100% 발효 녹두 성분이 피부 진정은 물론 각질을 제거하고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알코올 대신 발효 알코올을 함유해 면도 후 바로 발라도 마무리감이 부드럽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피부 관리를 넘어 화사한 피부 표현을 원하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도 인기다. 메리케이 'CC 크림 컴플렉션 코렉터 크림 선스크린 SPF 15'는 주름 개선·미백·자외선 차단의 3중 기능성의 CC 크림이다. 남녀 모두를 위한 제품이지만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치지 않아 피부 요철이 심한 남성들이 더욱 선호한다.

화장하는 남성들이 늘어난 만큼 클렌징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필립스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남성용 진동클렌저인 '비자퓨어맨'(아래)을 출시했다. 꼼꼼한 클렌징에 익숙하지 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선보인 이 제품은 여름철 땀과 피지로 막힌 모공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루밍 아이템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지원기자 pjw@

황산화 성분이 1.5배 크랜베리 주스 동서는 15일 미국 크랜베리 전문 회사인 오션스프레이사와 독점계약을 통해 주스음료 4종과 크레이진(CRAISINS, 건조크랜베리) 3종을 출시하고 프리미엄 주스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가격은 할인점 기준으로 1.5ℓ 음료는 5500원, 크레이진(CRAISINS) 142g은 2850원이다. /동서 제공

웨딩드레스 체형 알고 고르자

예비 신부들이 결혼 준비를 할 때 가장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바로 웨딩드레스다. 웨딩드레스는 자신에게 어울리고 체형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디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르보네르 웨딩(www.lebonheur.co.kr, 원장 김진아)'이 체형별 웨딩드레스 고르는 방법에 대한 팁과 트렌드를 공개했다.

마치 인어처럼 생겼다고해 붙여진 이름의 머메이드 웨딩드레스는 키가 크거나 어깨가 넓은 신부에게 추천하는 스타일이다. 상반신에서 엉덩이 부분까지 타이트하게 딱 맞았다가 엉덩이 아래부터 넓게 퍼지는 스커트 라인이 볼륨감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마른 체형보다는 어느 정도 볼륨감 있는 체형에 어울린다.

종 모양처럼 허리 아래부터 둥글게 퍼지는 벨 라인 웨딩드레스는 사랑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본식 때 가장 많이 입는다. 하체를 풍성한 스커트로 가리기 때문에 하체비만으로 콤플렉스가 있는 신부에게 추천한다. 또 풍성하고 긴 스커트가 특징이라 키가 작은 체형은 보다 더 커보일 수 있다.

아담한 체형에게 잘 어울리는 엠파이어 라인 웨딩드레스(사진)는 19세기 초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드레스 스타일이다. 다른 웨딩드레스가 허리를 잡아주는 반면 이 드레스는 가슴 바로 아래 부분을 꽉 잡아준다. 때문에 두꺼운 허리가 콤플렉스가 있거나 혹은 임신 중에 식을 올릴 때 가장 적합한 스타일이다.

김진아 르보네르웨딩 원장은 "자신의 체형에 맞고, 컴플렉스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것이 결혼식에서 가장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맞춤형 웨딩드레스를 통해 실속과 품격을 동시에 잡아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르보네르웨딩은 결혼정보커뮤니티 '미스송의 웨딩다어리(http://cafe.naver.com/iammissy)'를 통해 부케, 부토니아 등의 서비스를 비롯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070-7836-7768 /정혜인기자 hijung0404@

SCREEN
FINAL 시즌 | 하드코어 섹시 뱀파이어 시리즈
트루블러드7
7월 10일 목요일 밤 10시 첫방송
SCREEN NEW SERIES
NEW 시즌 | HBO 미스터리 스릴러
레프트오버
7월 11일 금요일 밤 10시 첫방송
t.cast
channel SCREEN DRAMAcube FOX FOXlife FX

새로 나온 책

인문

후박사의 힐링시대 프로젝트

이후경·장효숙/좋은땅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흥미로운 심리치료 정신분석학 프로젝트다. 또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가정, 학교, 직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힐링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앱 제너레이션: 스마트 세대와 창조 지능

하워드 가드너·케이티 데이비스/와이즈베리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인 세계적 석학 하워드 가드너는 디지털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젊은 이들에게 충고한다. 현실 도피적이고 인간관계가 파편화되고 있으며 창조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앱 주도적인 마인드'를 회복하도록 지금 당장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 저자는 앱이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이들에게 더 높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도약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기술·공학

15분 어린이 헤어 커트

ZUSSO KIDS/니들북

집에서 엄마가 직접 미용사 같은 솜씨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일본의 유명한 어린이 헤어 살롱 ZUSSO KIDS의 대표 헤어스타일리스트의 테크닉을 이해하기 쉽게 사진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헤어 커트에 필요한 도구에 대한 설명부터 아이들의 다양한 스타일링까지 자세히 다뤄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계발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

한혜경/아템포

베이비붐 세대가 현재 겪고 있는 후회의 기록들을 담았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수많은 은퇴남들이 진지하게 생각했던 고민과 후회, 그리고 돈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삶의 가치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온다.

마음의 벽을 허무는 한마디

마크 로즈/위즈덤하우스

성공한 벤처사업가였던 저자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한마디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한 후 어떤 상대라도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대화법을 담았다. 신경언어프로그래밍을 바탕으로 대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자가 진단 방법을 제시하고 대화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여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정치·사회

다시, 사람이다

고상만/책담

인권운동가 고상만이 민주화 투쟁과 인권 유린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기록한 르포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을 치르는 치열한 삶 속에서의 참혹한 사연과 노동자나 빈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투쟁이 슬프지만 뜨거운 언어로 전해진다.

익숙해서 잊고 있었던 것들

성숙한 '광수 생각' 등

'광수생각'의 박광수 작가가 좀 더 진지한 책을 들고 찾아왔다. 그간 이 작가가 많은 이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특유의 촌철살인과 해학, 멋진 그림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누구나 똑같은 일상을 살지만 그에게는 사소한 것에서 남다른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 짧은 글이지만 깊은 사유가 담겨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나뉘었다. 저자는 익숙한 것들에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한다. 한 편의 시화같은 그림과 함께 짤막한 글들은 깊은 울림을 준다. 저자는 1장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나'를 마주하며 긍정의 메시지를 전한다. 자신의 삶을 '리미티드 에디션'에 비유한 저자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어쩌면, 어쩌면, 어쩌면.

박광수/청림출판

모두를 응원한다.

2장은 '관계'를 다룬다. 관계 속에서 약자가 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한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때로는 '보여지는 것'에 의존하게 된다. 저자는 사소한 주변의 사물을 빌어 인위적이지 않은 관계의 중요성을 짚는다. 2장을 요약하면 '솔직한 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에 임하는 현대인들의 행태를 꼬집는다.

그 뒤를 이어 저자는 '부모에 대한 애틋함'과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1장과 2장에서 말한 '나'와 '관계'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 가장 가까워서 더 볼 수 없었던 부모, 달콤하고 소중한 사랑의 가치를 짧지만 울림있는 글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마지막 장에는 '인생이 언제나 좋은 일만 있겠냐마는 쓸쓸하면 쓸쓸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그 자체로도 충분히 좋은 날들이 될 수 있다'고 관조한다. 마냥 좋을 수만 없는 게 인생이라면, 자족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볼 만한 날들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중년 남성, 작가 박광수의 감수성이 큰 위로로 다가온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 지구의 중심에서 가장 먼 산, 침보라소

해수면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지만 지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 가장 높은 산은 에콰도르의 침보라소 산이라고 한다. 지구 중심에서 가장 먼 곳에 단단히 얼어붙은 만년설, 긴 세월 멀리서 지구를 지켜보고 있었을 빙설이 어딘가 초월적인 느낌을 준다. 소란한 삶에서 멀리 벗어나고 싶을 때,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고 싶을 때, 침보라소에 서있는 나의 모습을 떠올려야겠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김은희/플럼북스) 중 –

/정혜인기자 hijung0404@

예스24, '북캉스' 독자 위해 이벤트

인터넷 서점 예스24(대표 김기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북캉스(Book+Vacance)'를 즐기고 싶어하는 독자들을 위해 휴가철에 읽을만한 인기 전자책과 종이책을 최대 80%까지 할인하며 경품 이벤트를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회사는 오는 31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50명에게 이중텐, 사람을 말하다·기브 앤 테이크·아카루스 이야기·기업의 시대·행복의 기원 등 SERI CEO 추천 도서 5종을 전자책으로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를 한다.

이와 함께 문학 분야 베스트셀러를 비롯해 '셜록홈즈' 전집과 '노다메 칸타빌레' 등의 인기 시리즈물 전자책을 2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e연재'를 하룻동안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도록 VIP 소설클럽 이용권을 준다.

회사는 다음달 17일까지 SERI CEO·현대경제연구원·KT경제연구소 등 공신력 있는 경제연구소에서 추천한 휴가철 필독서와 MD 추천 도서를 소개하는 종이책 기획전도 벌인다.

해당 도서 3만5000원 이상 구매자에 한해 선착순 300명에게는 YES포인트 5000원을 준다. SERI CEO가 발표한 'CEO가 휴가에 읽을 책' 15권을 묶은 특별구성세트 구매자 중 5명에게는 YES포인트 5만원을 지급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김학철기자

여리지만 강한 여성, 자유를 외치다!

화제의 책

분노와 저항의 한 방식, 페멘

페멘/디오네

우크라이나 서부의 소도시 크멜니츠키에 살던 세 명의 소녀 안나 훗솔·사샤 셰브첸코·옥산나 샤츠코. 그리고 이 무리에 합류한 케르손 출신의 인나 셰브첸코.

이들 4인방은 여성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기로 결심하고 세상에 저항하기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저항할 것이며, 목표물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열심히 해답을 찾았다.

그런 과정에서 이들이 발견한 첫 번째 대주제는 '우크라이나는 매음굴이 아니다'였다. 이에 그들은 우

크라이나에서 권력의 비호 아래 성업 중이던 섹스산업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더불어 이들은 투쟁을 하면서 제대로 된 단체의 모습을 갖췄다.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도 여성운동을 넘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 넓어졌다. 이렇게 여성운동단체인 '페멘'이 완성된 것이다.

또 이들은 철저하게 비폭력 투쟁만을 전개했다. 페멘의 이미지는 '여성 전사들'에 가까웠지만 이들은 가슴을 드러내며 무기가 없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몸 위에 구호를 적고 머리에 화관을 쓴 채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나갔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지위를 위한 투쟁과 함께 교조주의적 종교, 경제적인 약탈 등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억압하는 모든 것과 맞서 싸우고 있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 열정적인 젊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열도 한류의 중심에 서다

성숙한 남성미·빼어난 외모·친근 매력
일본 활동 2년 만에 K-팝 주류 자리매김

제2의 전성기 연 데뷔 14년차 그룹 오션

신화를 시작으로 god, 플라이투더스카이 등의 활동 재개가 가요계를 풍성하게 하고 있다. 한편으론 일본을 중심으로 조용히 한류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또 하나의 베테랑 그룹이 있다. 2001년 5명의 훈남들이 뭉친 '오션'(카인·로이·랜·노아·마린)이 그 주인공이다. 다섯 개의 새롭고 진실된 이미지(5 True Image Of New)라는 팀 결성 의미를 해외로 확장해 가고 있다.

일본 도쿄 최대 한류 타운이 형성된 신오쿠보 거리는 1~2년 전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평일 낮에도 발디딜 틈 없던 한국 연예 관련 상점이나 식당에는 나날이 현지인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한일 외교관계 악화가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고, 획일화돼 가는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식은 것도 원인이다.

그러나 인근의 한 소규모 공연장인 쇼박스의 풍경은 정반대다. 매주 2~3회씩 열리는 한국 가수의 공연을 보려는 현지인들이 매회 공연장을 가득 채운다. 일본 팬을 사로잡고 있는 '오션'은 기존의 한국 아이돌이나 댄스 그룹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180㎝ 이상의 훤칠한 외모를 지닌 30대 남성들인 오션은 고품격 성인돌을 지향한다.

이들은 한류 붐이 식기 시작할 무렵인 2012년 8월에 일본에 데뷔, 쇼케이스를 열고 현지 팬들과 처음 만났다. 일본 음반 유통 회사들도 K-팝에서 눈을 돌리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비관하지 않고 현재 소속사인 예원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쇼박스에서 프로모션 라이브를 계속했다.

팬들은 점차 오션이라는 팀을 알게 됐고, 멤버 개개인의 이름과 매력까지 기억했다. 어느새 공연장은 팬들로 가득 찼다. 티켓은 예매 시작 5분 만에 매진됐다. 급속도로 인기가 올랐다.

한국의 대형 기획사를 등에 업은 아이돌 가수만이 일본에서 음반 발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오션은 소극장 공연의 힘으로 지난달 25일 일본에서 첫 번째 싱글 '올 포 유/러브 러브 러브'를 발표했다. 이 싱글은 오리콘차트 K-팝 부문에서 3위를 기록했고, 인디즈 부문에서 7위라는 성과를 올렸다.

오션 멤버들이 도쿄 신주쿠의 한식당 앞에서 김치 홍보 행사로 현지인들을 대거 불러 모았다.

또 이에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싱글을 10월 15일, 세 번째 싱글을 12월에 발표해 오리콘 정상에 오르겠다는 당찬 목표를 세웠다.

2001년 오션의 데뷔는 가요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남성미 물씬 풍기는 멤버들은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 세련된 창법과 호소력 짙은 소프트 R&B를 부르며 대중의 뇌리에 깊이 들어섰다. 보이그룹과 다른 '맨그룹'으로 강렬함을 전했다.

그러나 군복무와 소속사 문제 등으로 2006년 활동을 중단했고, 6년 만인 2012년 다시 모였다. 오병진은 카인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쇼핑몰과 김치 브랜드 등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는 본업으로 다시 정상에 도전한다.

로이라는 이름을 쓰는 손일권은 현역 복무 이후 드라마 '쾌걸춘향' '태양을 삼켜라' '동이' '나도 꽃' 등에 출연하며 연기자로 인정받았다. 두 명의 원년 멤버 외에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렌이 2011년 새롭게 합류했다. 앤디·손호영·틴탑 등의 앨범에 곡을 쓴 미국 유학파 출신이다. 지난해에는 일본 공략을 위해 노아와 마린이 합류해 5인 체제를 완성했다.

지난 2년 동안 일본에서 지속적인 공연으로 상당수의 일본 팬을 확보한 이들은 일본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에서도 '오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각인시키겠다는 각오다. 초심으로 돌아가 데뷔 앨범에 실렸던 '모어 댄 워즈'를 재편곡해 최근 발표했다.

원작자 김석찬이 2014년의 트렌드에 맞게 세련되게 편곡한 곡이다. 그동안 오션을 기다려준 팬들에게 보내는 노래다. 고급스러운 멜로디와 5명의 완벽한 하모니, 새로운 멤버들이 부르는 색다른 매력이 담겼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디자인/최송이

렌(크리스 리)
별자리:천칭 자리
혈액형:AB형
키:185㎝
취미:랩메이킹
특기:작사·작곡

로이(손일권)
별자리:게 자리
혈액형:B형
키:180㎝
취미:여행·요리
특기:골프·승마

마린(양혜민)
별자리:궁수 자리
혈액형:O형
키:180㎝
취미:영화감상
특기:스노보드

노아(이승희)
별자리:쌍둥이 자리
혈액형:AB형
키:181㎝
취미:영화감상·사진촬영
특기:컴퓨터·고민 상담

카인(오병진)
별자리:처녀 자리
혈액형:O형
키:181㎝
취미:드라이브
특기:수영·스쿼시

HOT PHOTO

씨스타 섹시하게 컴백 씨스타가 섹시 예고 영상으로 새 앨범 활동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15일 공개된 영상에는 섹시한 의상으로 몸매를 부각시키고 아릇한 표정을 짓는 씨스타와 이들과 코믹한 호흡을 맞추는 김보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4명의 멤버 모두 물오른 미모로 눈길을 끌었다. 씨스타는 21일 새 앨범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터치 마이 보디'로 활동한다. 지난해 6월 정규 2집 '기브 잇 투 미' 이후 1년여 만이다. /유순호기자

‘감성 보컬’ 거미 소극장 공연

19일 ‘폴 인 어쿠스틱’

가수 거미(사진)가 19일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단독 콘서트 ‘폴 인 어쿠스틱’을 개최한다.

지난달 4년 만의 앨범 ‘사랑했으니..됐어’를 발표해 여성 감성 보컬리스트의 저력을 보여준 거미는 보다 가까이에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소극장 공연을 준비했다. 이번 공연은 소극장이라는 이점을 살려 어쿠스틱한 가을 분위기 속에 관객과 함께 음악을 공감할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이다.

또 작은 카페에서 거미의 음악을 접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아늑한 공간을 연출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거미는 ‘사랑했으니..됐어’의 수록곡은 물론 ‘그대 돌아오면’ ‘기억상실’ 등 히트곡을 모두 부를 예정이다.

공연을 앞둔 거미는 “오랜만에 단독 콘서트라 기쁘고, 가까이에서 팬과 만날 생각에 설렌다”며 “처음 시도하는 어쿠스틱 공연인 만큼 내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같이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순호기자 suno@

비·장근석 역외 탈세 논란

“사실 아니다” 소속사 공식입장 밝혀

‘역외 탈세’ 논란에 휘말린 배우 장근석과 비의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장근석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와 비 소속사 큐브DC는 중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로 몰래 밀반입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탈세한 혐의를 포착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장근석 소속사는 “채널A에서 보도한 해외 수입에 관련한 조세 포탈 정황 보도는 명백한 오보임을 밝히며 현재 장근석이 탈세 의혹을 받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트리제이컴퍼니는 중국 내에서의 아시아투어와 팬미팅 등을 비롯한 행사에 대해 합법적으로 계약하고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비 소속사 큐브DC 역시 “비의 해외 수입에 대한 조세 포탈 정황 포착과 관련한 채널 A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임을 알려드리며 전혀 사실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가수 비(정지훈).

장근석.

비 측은 “큐브DC 당사는 중국 내에서의 이벤트 섭외를 진행한 행사 기획사와 모든 건에 대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출연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정확하고 투명한 인보이스를 토대로 큐브DC의 공식 계좌를 통해 전액 출연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당사가 진행한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외 공연과 여타 수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모두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아티스트의 중국 내 공연, 행사, 광고 등 일체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정상적인 세금 신고가 진행, 완료되지 않은 것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음을 밝힌다”며 “검찰과 국세청의 자료요청이 있다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채널A는 검찰이 비와 장근석 등이 중국에서 공연을 하고 벌어들인 수익 등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크레용팝 美 방송서 ‘빠빠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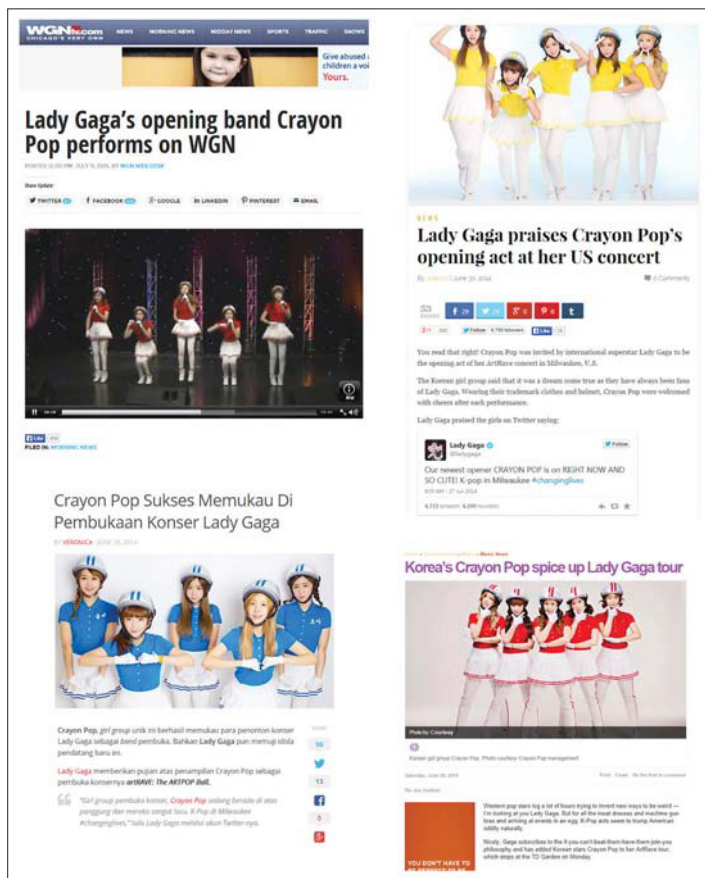
레이디가가 투어 오프닝 공연 화제

걸그룹 크레용팝(엘린·소율·금미·초아·웨이)이 미국에서 ‘직렬 5기통 춤’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인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북미투어 콘서트 오프닝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크레용팝이 시카고 지역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크레용팝은 지난 12일 미국 최대 방송 그룹인 트리뷴의 시카고 지역 방송국 WGN-TV의 ‘모닝 뉴스’에 출연해 히트곡 ‘빠빠빠’를 라이브로 선보였다. 뉴스 진행자는 크레용팝을 “지난해 ‘빠빠빠’로 큰 인기를 모은 K팝 그룹으로,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는 1800만 건을 넘어섰다”고 소개했다. 이어 “레이디 가가는 자신의 투어 콘서트 오프닝 무대를 크레용팝이 장식하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크레용팝 소속사 크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외에도 보스턴 헤럴드, 밀워키 저널 센티넬 등 미국 대표 지역 언론을 비롯해 캐나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해외 언론에서도 크레용팝의 레이디 가가 투어 콘서트 오프닝 무대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크레용팝이 레이디 가가 오프닝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방문하는 도시마다 많은 현지 매체로부터 인터뷰와 방송출연 요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각종 온라인 사이트가 크레용팝을 소개했다.

한편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8회차 공연을 앞두고 있는 크레용팝은 휴스턴, 달라스, 라스베가스, LA 공연을 마치고 오는 24일 귀국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 시어터]

국내최초! 러시아 오리지널 팀 내한!

무너진 제국,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어난 사랑!
국내최초! 빙판위에서 펼쳐지는 뮤지컬!
세계 최정상 메달리스트들로만 구성된 '정통 러시아 국립 극장 팀'이 선사하는 환상의 무대!

2014. 08. 22(금)~24(일) |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22(금) 3:00pm, 8:00pm | 23(토) 3:00pm, 8:00pm | 24(일) 1:00pm, 5:00pm

VIP 132,000 원 | R 99,000 원 | S 77,000 원

주최 : TV조선 (주)공진산업개발 GONGJIN DEVELOPMENT COMPANY LET'S SHOW ENTERTAINMENT 주관 : LET'S SHOW ENTERTAINMENT creative group NAKTA company (주)백두트랜스타 예매처 : 인터파크

공연문의 : 02)707-1051 www.icemusical.com

AOA 민아 '모던파머' 주연

그룹 AOA의 민아(사진)가 SBS 새 주말극 '모던파머'의 주인공을 맡았다.

민아는 작품에서 미스터리녀 이수연 역을 연기한다. 해맑은 미소가 돋보이는 청순한 외모를 지녔지만 요양 차 귀농한 서울 아가씨로 위장하고 다니는 반전 캐릭터다.

록밴드 '엑소(엑설런트 소울스)' 멤버들과 에피소드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민아는 올 초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에서 김희선 아역을 맡아 안정적인 연기를 했다. 최근 tvN '꽃할배 수사대'에선 실감나는 오열 연기로 호평 받았다.

'모던파머'는 록밴드 멤버들의 귀농 이야기를 그리는 청춘 코믹 드라마다. SBS '결혼의 여신'을 연출했던 오진석 PD와 tvN '롤러코스터' '푸른 거탑'을 쓴 김기호 작가가 함께 작업했다. 민아 외에도 이홍기, 이시언, 박민우, 김재현이 출연을 확정했다. '기분 좋은 날'의 후속 작으로 10월 18일 첫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정신병 편견 사라지길…"

'괜찮아 사랑이야' 강박증·남성불안증·투렛증후군 치유

SBS 새 수목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의 조인성·공효진. /SBS 제공

배우 조인성과 공효진이 마음의 병을 고백했다.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펠리스 호텔에서 열린 SBS 새 수목극 '괜찮아 사랑이야' 제작발표회에서 조인성은 "연예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은 대중에게 노출되면서 오는 불편함"이라며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집착이 생길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내려 놓으니 편해지는 게 많다"며 "사소한 거지만 친구와 길거리를 걷는 용기를 내는 것부터 위로가 된다. 불편함을 하나씩 해결 중이다"고 덧붙였다.

공효진은 지난달 교통사고로 팔 골절 수술을 받고 드라마 촬영을 강행하고 있다. 그는 이날 "최근에는 차에 대한 공포가 생겨서 잠을 설친다"며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 구나.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리와 팔을 치료하면서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며 "선생님이 약을 만들어 줘서 잠을 잘 자게 됐다.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걸 감추려고 하는데 막상 해보니 감기약, 당뇨병 환자가 먹는 약 같이 느껴졌다. 꺼릴 이유가 없다"고 후유증을 고백했다.

조인성은 작품에서 강박증을 지닌 인기 추리소설가 겸 라디오 DJ 장재열 역을 맡았다. 공효진은 겉으로는 시크하지만 실제론 인간적이고 환자에 대한 애정이 많은 정신과 의사 지해수를 연기한다.

이광수는 투렛 증후군을 지닌 긍정적인 성격의 박수광을 연기한다. 그는 "실제로 있는 증후군을 연기하려니 걱정된다. 연구를 많이 할 것이다. 희화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어릴 때 눈을 깜빡이는 틱 증상이 있었다. 커서는 머리를 꼬는 습관이 있는데 고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괜찮아 사랑이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남녀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다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그린다. 강박증, 남성 불안증, 투렛 증후군 등 저마다의 정신병을 지닌 인물들이 한 공간에 산다.

노희경 작가는 "취재 과정에서 5명의 정신과 의사의 우려를 고려했다. 국민의 80%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고 20%는 약을 먹어야 할 수준"이라며 "모든 사람이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 우리 사회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편견이 깨지길 바란다"고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오는 23일 첫 방송.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지코 '쇼! 음악중심' MC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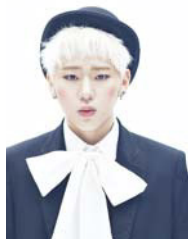
아이돌 그룹 블락비의 멤버 지코(사진)가 MC로 변신한다.

MBC는 "지코가 오는 19일부터 '쇼! 음악중심'의 고정 MC로 합류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1년 2개월 가량 '쇼! 음악중심'의 진행을 맡았던 노홍철의 빈자리를 채우게 된 지코는 앞으로 샤이니의 민호, 배우 김소현과 함께 프로그램을 이끌 예정이다.

지코는 블락비의 리더로서 다른 아이돌 그룹 음반 프로듀싱까지 맡을 정도로 뛰어난 음악적 기량을 자랑한다. 최근 지코는 각종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다른 입담을 과시하며 예능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지코는 이날 방송에서 블락비의 신곡 '잭팟'을 최초로 공개한다.

/김지민기자

박유천 중국 대륙을 흔들다

'쾌락대본영' 출연 시청률 1위 기록

JYJ의 박유천이 출연한 중국 예능 프로그램이 현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박유천이 출연한 '쾌락대본영'이 올해 한국 연예인이 출연한 방송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동시에 중국 전체 방송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며 "방송 직후 중국 소셜네트워크(SNS)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쾌락대본영'은 '남신특집'으로 꾸며졌다. 박유천은 한국 남자 배우로는 유일하게 초대돼 한류스타로서 면모를 과시했다.

현지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시청률은 2.242%로 '쾌락대본영'의 회당 평균 시청률(1.844%)과 전주 방송 시청률(1.922%)을 훨씬 앞서는 수치를 기록했다.

중국 후난위성TV '쾌락대본영'에 출연한 박유천.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박유천은 이달 말 JYJ 활동과 영화 '해무'로 팬 앞에 선다.

/김지민기자 langkim@

최지우 '유혹' 시청률 1위

SBS 월화드라마 '유혹'의 최지우(사진)가 고혹적인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난 14일 '유혹' 1회에서 최지우는 냉철하면서도 매력적인 여성 CEO 유세영을 완벽히 그려냈다. 15일에는 거품이 가득한 욕조 안에서 매끈한 어깨라인을 드러내는 목욕신으로 화제를 모았다.

첫 회 시청률 9.6%(TNmS·전국 기준)를 기록해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전작 '닥터 이방인' 첫 회(9.4%)보다 0.2%포인트 높았다. 동시간대 방송한 MBC '트라이앵글'(7.9%)과 KBS2 '트로트의 연인'(7.5%)을 각각 1.7%포인트, 2.1%포인트 앞섰다.

/전효진기자

강동원 여름엔 액션 가을엔 멜로

'군도' 이어 송혜교와 '두근두근 내 인생'

4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온 배우 강동원이 여느 배우들보다 바쁜 행보로 관객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30일 개봉 예정인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에서 악역에 도전한 그는 추석 시즌인 9월에는 송혜교와 함께한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으로 반전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17세 나이에 자식을 낳은 어린 부모와 17세를 앞두고 신체 나이 80세가 된 세상에서 가장 늙은 아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김애란 작가가 지난 2011년에 발간해 3개월 만에 14만부의 판매부수를 기록한 동명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이다.

개봉 확정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된 스틸 속에서 강동원은 해맑은 표정과 소탈한 모습으로 '군도: 민란의 시대'에서와는 사뭇 다른 면모를 보여 눈길을 끈다. 이번 영화에서 강동원은 33세 나이에 16세 아들을 둔 철부지 아빠 대수 역을 맡아 순수한 '아들 바보' 캐릭터를 보인다.

강동원과 함께 호흡을 맞춘 송혜교는 한때 아이돌을 꿈꿨으나 17세 나이에 엄마가 돼버린 젊은 엄마 미라 역을 맡았다. 공개된 스틸 속에서 송혜교는 기존의 여신 이미지를 벗고 따뜻하고 포근한 매력으로 영화 속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여기에 최근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로 화제를 모은 백일섭이 7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해 대수와 미라의 아들인 아름이의 친구이자 옆집 할아버지인 장씨 역으로 친근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군도'의 강동원.

'두근두근 내 인생'의 강동원과 송혜교.

부모보다 빨리 늙어가는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아들과 아들보다 젊은 부모의 특별한 이야기를 그린 '두근두근 내 인생'은 '스캔들-남녀상열지사'와 '여배우들' 등을 연출한 이재용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베스트셀러 소설 원작, 그리고 스타들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두근두근 내 인생'은 올 추석 극장가에 걸린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헤니 디즈니 애니 '빅 히어로6' 더빙

배우 다니엘 헤니(사진)가 디즈니 신작 애니메이션 '빅 히어로 6'의 더빙 배우로 캐스팅됐다.

'빅 히어로 5'는 천재 형제가 개발한 로봇 베이맥스와 친구들이 여섯 명의 히어로가 돼 펼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다니엘 헤니는 베이맥스를 개발한 형제 중 천재공학도 형 역을 맡았다.

또한 한국계 배우 제이미 정도 주연급 캐릭터를 맡아 글로벌 메이저 애니메이션 작품에 두 명의 한국계 배우가 동시 캐스팅 되는 유례없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빅 히어로 6'는 동명 마블 코믹스 원작으로 '겨울왕국'과 '주먹왕 랄프'의 제작진이 참여하며 마야 루돌프, 제임스 크롬웰, T.J. 밀러, 알란 터딕 등의 배우들이 목소리 더빙으로 참여한다.

연출을 맡은 돈 홀 감독은 "작품의 각 캐릭터를 잘 표현해 낼 수 있는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작업하게 돼 영광이다. 영화에서 연기자들에게 여러 감정을 넘나드는 연기가 요구되는데 이들 모두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더빙 캐스팅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한편 디즈니의 신작 애니메이션 '빅 히어로 6'는 내년 1월 국내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亞 최초 4K쿼드영사

세계 최대 스크린으로 기네스북 공식 인증을 받은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가 최신식 음향과 영사 기술을 도입한다.

제2롯데월드 내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의 초대형관인 '수퍼플렉스G'에는 세계 최대 스크린에 걸맞게 아시아 최초로 '4K쿼드영사시스템'이 도입됐다. 4K영사기는 기존 디지털 영화에서 사용되던 2K해상도 영사기보다 2배 더 높은 해상도의 픽셀을 사용하는 차세대 고화질 영사 시스템이다.

롯데시네마 측은 " '4K쿼드영사시스템'은 이러한 4K 영사기 4개를 함께 스크린에 투사해 훨씬 더 밝고 선명한 영상을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내 초대형관 '수퍼플렉스G'에 도입된 4K쿼드영사시스템. /롯데시네마 제공

또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는 6개의 특수음향관도 함께 들어선다. '수퍼플렉스G'를 포함한 6개관 모두 현존 음향 기술 중 영화관에 가장 적합한 돌비 애트모스 기술이 도입됐다. 돌비 애트모스 기술은 극장 내 원하는 위치에 사운드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 사방을 감싸는 사운드 효과로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장병호기자

강예원·송새벽 한여름 이색 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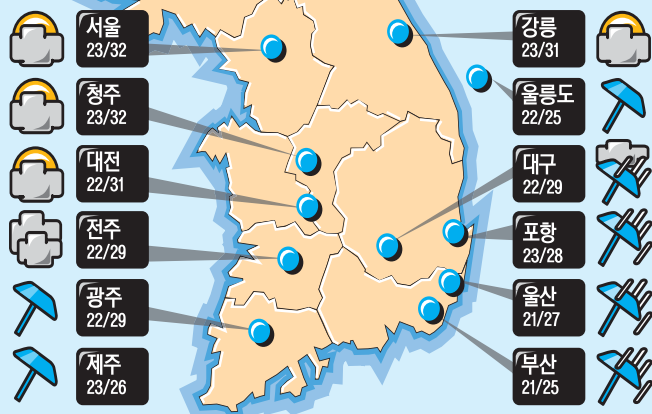
'내 연애의 기억' 내달 개봉

강예원, 송새벽 주연의 이색 로맨틱 코미디 '내 연애의 기억'이 다음달 21일 개봉 확정과 함께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내 연애의 기억'은 번번히 연애에 실패하던 은진(강예원)이 운명적으로 만난 남자 현석(송새벽)과 인생 최고의 연애를 이어가던 도중 그에게 숨겨진 믿을 수 없는 비밀들을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개봉일 확정과 함께 공개한 티저 포스터는 장식 인형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강렬한 컬러가 돋보이는 붉은 케이크 위에 올라서 있는 강예원, 송새벽 커플의 모습을 담았다. 의문과 의심이 가득 담긴 표정을 짓고 있는 강예원의 모습과 경직된 듯한 표정과 자세로 서있는 송새벽의 모습이 영화 속 스토리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실제로도 막역한 사이로 잘 알려진 강예원과 송새벽은 이번 작품에서 전무후무한 매력으로 케미스트리를 뽐냈다는 후문이다. 제1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한 '내 연애의 기억'은 다음달 21일 개봉된다.

/장병호기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5	3		2			
				1		7		
	7						1	5
	2	6		9				
1			2	4	3			9
				6		2	3	
4	9						5	
		8		3				
			4		8	6		1

	9			6			1	
	5					9		
8					7	6	3	
		5	3	4		2		
			7		5			
		2		8	9	7		
	2	4	1					9
		3					6	
	7			3			8	

스도쿠 정답

9	1	5	3	7	2	8	4	6
8	6	4	9	1	5	7	2	3
2	7	3	6	8	4	9	1	5
3	2	6	5	9	7	1	8	4
1	8	7	2	4	3	5	6	9
5	4	9	8	6	1	2	3	7
4	9	1	7	2	6	3	5	8
6	5	8	1	3	9	4	7	2
7	3	2	4	5	8	6	9	1

2	9	7	5	6	3	8	1	4
3	5	6	8	1	4	9	2	7
8	4	1	2	9	7	6	3	5
7	6	5	3	4	1	2	9	8
9	3	8	7	2	5	1	4	6
4	1	2	6	8	9	7	5	3
6	2	4	1	5	8	3	7	9
5	8	3	9	7	2	4	6	1
1	7	9	4	3	6	5	8	2

문제 제공=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캣우먼

임경선 칼럼니스트
askcatwoman@empal.com

매사를 남에 의존, 성격 고쳐질까 거리 두고 심리적 독립해보세요

Q Hey 캣우먼!

의존을 많이 해서 고민인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고서도 자꾸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옷을 하나 고르더라도 집에 가면 엄마한테 이런 옷을 왜 샀냐고 꾸중을 들을 거 같아서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옷을 골라도 엄마가 보기에 저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골라주시고 저도 그래야만 마음이 놓입니다.

싸울 때도 제가 생각이 꼬여서 피해의식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답답해요. /뫼비우스

A Hey 뫼비우스!

첫째로 그들은 스스로가 '착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엄마의 말을 잘 듣고 존중하는 착한 딸, 친구들에게 늘 숙이고 들어가는 너그러운 친구. 하지만 그거, 착한 것 아니고 의존적인 겁니다.

둘째로, 그들은 스스로를 남의 눈치를 살피는 '타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은 가족이든 친구든 그들이 늘 나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즉 자의식과다인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불쌍하고 안쓰러워하면서 성격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선택을 못하고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 실은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그렇게 하지 사실 고칠 이유를 찾기가 힘듭니다.

모든 행복과 만족을 타인의 반응에 의존할 때 분노는 내 안에 쌓이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가가 안 돌아오면 객관적인 판단 없이 무시당했다고 분노하는 뫼비우스의 띠가 됩니다. 또한 타인의 반응에 휘둘린다는 것은 그만큼 나와 타인의 경계가 애매하고 나만의 기준, 생각, 세계가 없다는 뜻이지요. 엄마건 친구건, 나의 의존성을 높이는 사람들에게서 거리를 두고 물리적, 심리적 독립을 해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의외로 당신을 뒤쫓아 오지 않을 겁니다. /캣우먼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임신계획 늦어 인공수정 하려는데… 내년엔 기운 가득, 체질 관리하세요

Q

밤동산 남자 74년 3월 20일 양력 오전 10시 20분
여자 73년 4월 25일 양력 오전 11시

출근하면서 항상 메트로 신문이 놓여 있는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론 없을 땐 실망도하지만..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지만 저에게는 언제부터인가 출근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인해 소득이 적고 결혼당시에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다보니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극적으로 임신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시작하자고 해서 작년 겨울부터 노력했으나 안 되어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1차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A 기운의 흐름에서 2015년 음력 3월, 10월은 합리적인 기운이 가득하니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불문하고 출산에 대한 소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각지의 많은 한의원, 약국, 등은 물론 작명소, 종교시설, 자연의 신성한 장소에서도 주부들의 애절한 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주 상으로는 착상의 기능이 약하다고 보는데 불임의 이유를 찾아보니 첫째가 신허(腎虛)하기 때문인데 불임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으로 신장과 자궁생식기의 기능이 약해서 정자나 난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니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정자가 힘이 없어 배란이 안 되는 것이며 둘째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사회생활이나 심적인 부담감으로 인하여 신경을 쓰다보면 기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 월경 량이나 주기가 일정치 못하고 생리 혈이 자흑색을 띠며 응어리가 질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 허와 함께 중요한 불임의 원인이데. 자궁이 너무 차서 배란이나 수정 또는 착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생리불순, 아랫배에 냉통, 생리통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체내에 열이 많아 과도한 스트레스로 울화가 쌓여 혈액에 열이 많아 월경이 잦거나 빨갛고 양이 많으며 식은 땀이나 미열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랫배에 어혈이 뭉쳐서 혈액 순환이 안 되어 월경 주기가 불규칙하고 눈 주위가 검은색을 띕니다. 여섯 번째는 비만한 여성의 경우 생리가 없거나 자주 끊기며 냉이 많고 소화불량일 수 있다고 하니 귀하가 해당되는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질을 보고 약을 지어 주는 한약방을 찾아가서 약을 먹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16일 (음 6월 20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일을 맡았으면 맨 앞에 서라. **60년생** 중용을 지키는 게 이롭다. **72년생** 매매 일은 서두르면 손해임을 명심~. **84년생** 너무 신중하면 도리어 손해 본다.

49년생 집안에 웃음꽃이 울려 퍼진다. **61년생** 측근의 말이라고 다 믿지 말라. **73년생** 사소한 고민거리가 생긴다. **85년생** 운기가 별로이니 일을 만들지 말라.

50년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족이 최고~. **62년생** 자신 있는 일일수록 신중해야 한다. **74년생** 남 탓보다 내 그릇을 더 키워라. **86년생** 계획대로 일은 풀린다.

51년생 사려 깊은 행동이 필요하다. **63년생** 뒤늦게 정신 차린 자녀가 고맙구나. **75년생** 고정관념을 깨면 운신의 폭 넓어진다. **87년생** 갑자기 친절한 사람 경계하라.

52년생 불편한 자리는 사양할 것. **64년생** 약속 번복하면 후폭풍 크다. **76년생** 소통이 잘 되어 가정도 직장도 화기애애~. **88년생** 즐거운 자리에 초대받는다.

53년생 잊지 못할 선물 기다린다. **65년생** 제 논에 물대기식 처신은 말라. **77년생** 수상한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다. **89년생** 꿈과 성공의 통로가 보여 야호~.

42년생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 말라. **54년생** 고난을 겪은 사람은 부활한다. **66년생** 좋은 문서가 들어오니 꼭 잡아라. **78년생** 깐깐한 상사 때문에 힘든 하루~.

43년생 사람냄새 맡으며 사는 게 즐겁다. **55년생** 항상 웃을 수 없으니 마음 비워라. **67년생** 독설은 또 다른 독설 부른다. **79년생** 직장인은 감정표현 신중할 것.

44년생 자손의 경사 기대하라. **56년생** 자손에 뜻밖에 좋은 일 생긴다. **68년생** 어려울수록 주어진 환경에 따르라. **80년생** 자신감은 좋은 결과 보증수표다.

45년생 친구 눈물 닦을 일 생긴다. **57년생** 큰일 하려면 사소한 반대 연연하지 말라. **69년생** 청룡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다. **81년생** 오늘보단 내일을 생각할 것.

46년생 고집부리면 왕따 자초~. **58년생** 길이 끝난 지점서 다른 길 발견한다. **70년생** 승진기회 놓치지 않으려면 존재감 보여주라. **82년생** 귀인을 만나 야망 키운다.

47년생 집안에 경사가 생긴다. **59년생** 일이 꼬이면 한발 물러서라. **71년생** 분주한 만큼 지갑은 두둑해진다. **83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면 나중에 땅을 친다.

유럽파 태극전사 둥지 옮긴다

김진수 독일행…박주영 터키 리그
이청용·기성용도 새 소속사 찾을듯

유럽 무대에서 활약중인 해외파 선수들이 대대적인 이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이 막을 내리면서 7월과 8월 두달동안 진행되는 유럽 축구의 여름 이적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기간에 각 구단은 2014-2015 시즌 개막을 앞두고 부족한 자원을 영입하는데 집중한다. 덕분에 유럽파 태극전사들의 이적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가장 먼저 이적 소식을 전한 선수는 부상 회복이 더뎌 끝내 월드컵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김진수(22)다.

일본 프로축구 J리그 알비렉스 니가타에서 활약해온 김진수는 지난달 13일 독일 분데스리가 호펜하임으로의 이적을 확정하면서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가장 먼저 둥지를 바꾼 태극전사로 이름을 올렸다.

김진수가 합류하면서 2014-2015시즌에는 분데스리가에서 손흥민·류승우(이상 레버쿠젠), 구자철·박주호(이상 마인츠), 지동원(도르트문트),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 등 7명의 한국 선수들이 뛰게 됐다.

김진수의 뒤를 이어 이청용(볼턴), 박주영(사진), 기성용(스완지시티) 등의 이적설도 불거지고 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 볼턴에서 뛰는 이청용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1부리그)에서 챔피언십으로 강등된 카디프시티로의 이적설이 떠올랐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15일 "카디프시티가 볼턴의 측면공격수 이청용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청용은 볼턴과 1년간 계약 기간을 남겨두고 있지만 소속팀이 자금확보를 위해 이적시킬 수 있다. 카디프시티는 이청용의 몸값으로 200만 파운드(약35억원)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덜랜드 임대를 마치고 스완지시티로 복귀하는 기성용은 최근 애스턴빌라 이적설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지 미러는 이날 "애스턴 빌라의 폴 램버트 감독이 기성용을 비교적 싼값에 영입하려고 한다"며 "애스턴 빌라는 경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메일도 "애스턴 빌라가 기성용의 몸값으로 600만 파운드(약105억원)를 책정했다"며 "기성용은 이번 시즌 애스턴 빌라의 가장 중요한 영입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성용의 에이전트는 이적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 외에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과 6월 말 계약이 끝난 박주영은 터키행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 잔류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터키 언론들은 최근 터키 슈퍼리그의 부르사스포르가 박주영의 영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부르사스포르는 FC 서울에서 사령탑을 지낸 세뇰 귀네슈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어 이적 가능성이 크다는 게 터키 언론의 분석이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최나연 한국 골프 자존심 살릴까

LPGA 마라톤 클래식 17일 개막

'미녀골퍼' 최나연(27·SK텔레콤·사진)이 한국 골프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마라톤 클래식(총상금 140만 달러)이 17일부터 나흘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이랜드 메도우 골프클럽(파71·6512야드)에서 열린다.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 여자오픈이 끝난 직후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1·2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와 리디아 고(뉴질랜드)를 비롯해 지난해 우승자 베아트리스 레카리(스페인) 등이 출전한다. 또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랭킹 99위에서 26위로 껑충 뛰어오른 모 마틴(미국)도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앞서 열린 메이저 대회인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US여자오픈 우승자 렉시 톰프슨(미국)과 미셸 위(25·나이키골프)도 출전해 올해 메이저 대회 우승자들이 샷 실력을겨루게 됐다.

한국 선수로는 2012년에 우승한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과 2010년 챔피언 최나연 등이 출전한다. 이 대회는 2012년까지 제이미 파 톨리도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이번 시즌 LPGA 투어 대회에서 좀처럼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박인비(26·KB금융그룹)는 같은 기간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하느라 이 대회에는 나오지 않는다.

/양성운기자 ysw@

김승규 2014 K리그 올스타 최다득표

국가대표 골키퍼 김승규(울산 현대·사진)가 2014 K리그 올스타 최다득표의 영예를 안았다.

김승규는 15일 마감된 팬 투표에서 총 12만2017표 가운데 9만9933표를 얻어 1위에 등극했다. 그는 K리그 클래식(1부 리그) 감독과 주장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11표를 얻어 공격수 김신욱(15표·울산 현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김승규는 팬 투표, 감독과 주장 투표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에서도 72점을 받아 최고점을 기록했다.

수비수 차두리(FC서울)가 57점으로 2위, 미드필더 이승기(55점·전북 현대)가 55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김승규는 K리그 클래식에서 동물적 운동능력을 자랑하다가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서 잇따른 슈퍼세이브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날 올스타전 베스트일레븐도 공개됐다. 두 스트라이커로는 김신욱과 이근호(상주 상무), 좌우 윙어에는 염기훈(수원 삼성)과 이승기가 선발됐다. 중앙 미드필더로는 윤빛가람(제주 유나이티드)과 김두현(수원 삼성)이 짝을 이뤘다. 좌우 풀백에는 홍철(수원)과 차두리, 센터백에는 윌킨슨(전북)과 김진규(서울)가 뽑혔다.

K리그 선수들과 박지성(은퇴)이 이끄는 국내외 스타들이 맞붙는 올해 K리그 올스타전은 2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양성운기자

'박치기' 정재근 5년간 '아웃'

심판폭행 자격정지 중징계

심판에게 박치기를 한 정재근 연세대 감독이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농구협회는 1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심판 폭행의 책임을 물어 정 감독에게 자격정지 5년의 제재를 내렸다. 정 감독은 지난 10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고려대와의 2014년 아시아·퍼시픽 대학 챌린지 결승에서 판정에 항의하며 욕설을 하는가 하면 심판 얼굴을 머리로 가격했다.

상벌위원회는 "정 감독의 심판 폭행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밝혔다. 정 감독이 징계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제재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돼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 감독은 11일 기자회견에서 "해서는 안 될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며 감독직 자진 사퇴 의사를 전했다. 이어 "이기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승부에 집착하다가 우발적인 행동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정재근 감독은 선수 시절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인기를 얻었다.

/유순호기자 suno@

프로야구 전적 15일

■잠실

팀				계
삼성	000	001	000	1
L G	030	100	030	7

△ 승= 리오단(6승 6패) △ 세= 이동현(2승 1패 1세이브) △ 패= 장원삼(9승 3패) △ 홈런= 박석민 20호(6회 1점·삼성)

■문학

팀				계
한화	112	100	300	8
S K	000	102	000	3

△ 승= 이태양(4승 4패) △ 패= 박민호(1승 3패) △ 홈런= 김경언 2호(3회1점·한화) 박정권 16호(6회2점·SK)